

24일 Market Index			
↑ 코스피	5553.92	↑ 코스닥	1121.44
	(+148.17)		(+24.55)
↓ 금리 (연이자율)	3.523	↓ 환율 (원/달러)	1494.00
	(-0.094)		(-23.30)

metro 경제

USD/KRW
1,495.30
Hana Bank
1500원 환율
정부 적극 개입
추가상승 경계
04

전쟁쇼크 반영 전인데... 기업 신용 줄하향 위기

닷새간 공격유예는 트럼프 기만전술?

중동 리스크 금융권 확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길어지자 신용등급도미노 강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발 세계 경기 위축 공포에 글로벌 무역 및 관세 분쟁 지속,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다. 현실화할 경우, 채무를 갚지 못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할 수 있다.

24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S&P가 평가하는 국내 기업(금융사 제외) 24개사 중 '부정적' 등급 전망은 21%(5곳)로 집계됐다. '긍정적' 전망은 8%(2곳)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보다 떨어질 곳이 더 많다는 뜻이다. <관련기사 3면>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가 보는 '부정적 전망' (BBB- 등급 이상, 무보증 선순위채, 보험지급능력평가 기준) 기업은 28개사나 된다. LG화학(AA+, 석유화학), 한화솔루션(AA-, 석유화학), 한화토탈에너지스(AA-, 석유화학), SK지오센트릭(AA-, 석유화학), 호텔신라(AA-, 면세), 현대엘리베이터(A+, 승강기), 포스코이앤씨(A+, 건설), HD현대케미칼(A0, 석유화학), SK아이이테크놀로지(A0, 2차전지소재), SK칼텍스(A0, 보안), 대우건설(A0, 건설) 등이다. '하향 검토' 대상은 SK디앤디(BBB



본지 '100세 플러스 포럼' 성료

신금융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은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고승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회장(전 금융위원장), 이장규 메트로경제신문 대표이사,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영익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택동 레이크투자자산 사장.

24일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에서 주요 인사들이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윤종연 하나은행 PB팀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은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고승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회장(전 금융위원장), 이장규 메트로경제신문 대표이사,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영익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택동 레이크투자자산 사장. /최규춘 기자 ch9720@

S&P·무디스, 포스코 주요 계열사 신용등급·전망 등 한단계 낮춰 '전쟁충격' 반영시 수출기업 중심 신용등급 하락 압력 더 커질 듯 정부 차원 보증 등 대책 마련해야

0, 부동산개발), SK실트론(A+, 반도체) 등 2곳이다. 경고음이 현실로 바뀐 곳도 있다. S&P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S&P와 무디스는 포

스코홀딩스·포스코·포스코인터내셔널의 신용등급과 등급전망을 하향했다. S&P는 중동전쟁과 관련해 "한국은 중동산 원유와 가스 의존도가 높다"면서 "에너지가격 상승이나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관련 산업(정유·화학 등)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미국발 '전쟁 충격'은 아직 신용부문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투자은행(IB)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금난에 무너지면, 그 부담이 결국 채권자와 금융사로 본격 전이될 수밖에 없어 파급력이 커진다"면서 "중동전쟁의

파장이 어디로 뻗지 모르는 만큼 정부 보증이나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 등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3.041%를 기록했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날 3.523%로 확대됐다. 중동발 시장금리 상승은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A은행의 대기업 연체율은 0.4%로 2017년 3월(0.8%) 이후 최고치다. B은행의 고정 이하여신 규모는 1조 1250 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K-바이오 '블록버스터' 키운다... 창업부터 전주기 지원

제약바이오협회 합동 정책간담회 'K-바이오 성장 사다리' 구축 구상 혁신자금 공급 등 '4UP 전략' 추진

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 벤처기업을 글로벌 수준의 '블록버스터' 창출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가 손을 잡고 창업부터 임상, 글로벌 진출에 이르는 전 주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이른바 'K-바이오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중기부와 복지부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합동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



24일 서울 서초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의 'K-제약바이오 창업과 성장' 발표회에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말하고 있다.

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양 부처는 ▲혁신자금 공급(스케일업) ▲개방형 혁신과 성과 창출(스피드업) ▲혁신 생태계(테벨업) ▲현장 중심 협업형 정책 설계(시너지업) 등 이른바

'4업 전략'을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자금 지원의 '연속성'이다. 중기부 대표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팀스에 선정된 기업이 복지부의 'K-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 패키지'나 '임상 R&D' 지원을 받을 때 별도의 중복 평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 기술평가 기반의 맞춤형 보증을 공급해 벤처기업의 단기 유동성 애로를 완화하고, 중기부와 복지부의 정책펀드를 연계해 신약 개발 단계별로 끊김 없는 투자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도 강화한다. 미국 보스턴에 설립된 세계 최대 바이오 벤처 허브인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 등 해외 유망 거점과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벤처와 제약사의 공동 R&D를 신선했다. 신약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신약개발 초기 단계에서 협업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이번 협업과 함께 오는 2030년까지 제약바이오 기술수출액 30조원을 실현하며 K바이오 의학 글로벌 5대 강국 진입을 현실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국내 제약·바이오 벤처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자금과 협력 파트너를 찾지 못해 성장이 더딘 경우가 많다"며 "국내 유망 벤처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메트로 한줄뉴스



▲정부 "대전화재 신원확인 피해자 장례지원에 만전"
▲'충남지사 불출마' 문진석 "세계 보냈던 응원 양승조에게 보내달라" /사진 뉴시스

▲조국혁신당,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6명 발표... "부패 제로 선사"
▲이진숙 "대구시장 말고는 다른 생각 한 적 없어... 공천 배제 취소해달라"

▲김 총리, '아시아 다보스' 보아오포럼서 26일 영상 기조연설
▲국회 재경위,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인청보고서 채택

중동궤 경제위기 대응

李 “비상 국정체계 준비... 추경,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

공공부문 자동차 요일제 강화 지지
정유업계 등 위기극복 동참 요청
“빛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중동 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민간에도 5부제 참여를 요청했다.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해선 “국민의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에 따르면 이번주 국정 기조는 ‘중동 전쟁 위기 대응’과 ‘비상 국정 체계 준비’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이날도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에 대한 비상 대응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일상에서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

황”이라며 “각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과 대체 공급선 등을 점검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27일에는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가 예정돼 있다”며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

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차량 5부제 독려를 위해 공공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영주차장은 (사용을) 살짝 제한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라”라며 “민간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권장(사항)인데 공영주차장은 (강제성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시했다.

중동 전쟁 발발 직후 공급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정유사에 대해선 “검찰이 어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며 발본색원·일벌백계를 주문했다. 이어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충격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 편성 처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추

경은 국민 체감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전,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 등을 주요 목표로 꼼꼼히 세부 내용을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가 재정의 차등 지원·지역화폐 지급 원칙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금보다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돈이 빨리 돈다”고 말했다.

이어 “단약 초과 세수가 없었다면 빛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 그럴 때 쓰자고 빛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라며 “어려우니까 다 허리띠 졸라매자” 그러면 큰일 난다. (재원을) 잘 쓰는데 유능한 것이고, 안 쓰는 건 유능한 게 아니라 무능한 데다가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sjy@metroseoul.co.kr



metro

中소업계 “기업·소상공인 위한 현실적 지원방안 필요”

중기중앙회, 중동상황 대응 간담회
정청래 민주당 대표 “25조 추경 편성”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 3번째부터)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정에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중동 전쟁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안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김기문 회장, 정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최근 우리 경

제가 중동사태로 인해 산업현장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수출기업은 거래 불확실성과 물류 비용이 증가하

고 이마저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고 국내 중소기업은 원가 급등과 원부자재 조달 문제로 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

다”며 “중동사태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 대안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여당에 ▲정부 수출바우처 운영 개선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확대 ▲포워드 중소기업 지원 ▲석유유통시장 거래 구조 개선 ▲중동발 공급망 불안 대응 및 피해 중소기업 지원 ▲조달청 비축물자 운영 개선 및 공공조달 납품기업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계에선 김 회장 외에 배조용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의료기기·식품·플라스틱·알루미늄

농·물류 등 중소기업 업종별 대표자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측에서는 정 대표 외에 한정에 정책위의장, 강준현 수석대변인, 김영환 당대표 정무실장, 안도걸 중동사태 경제 대응 TF 간사가 자리했다.

정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며칠 전 발표했듯 경제도 지금과 같이 불가침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며 “추경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편성할 듯 하다. 25조 원 규모로 긴급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하루가 급하고 실시간으로 급하다”며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metro

이찬진 “사전에방 중심 감독체계 전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장)

이 원장, 시민·소비자 단체 간담회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적극지원”



했다.

금감원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감독전반을 총괄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 체계 전환에 나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시민·소비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시민과 소비자가 행복한 금융시장을 구축하는 데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감독 방향과 금융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

역권별 감독과 분쟁조정 기능을 연계해 윈윈 처리 체계도 구축했다.

이 원장은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감독 및 분쟁조정 업무를 윈윈으로 수행하도록 개선했다”며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 금융사가 올해 소비자보호를 중점 과제로 설정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디지털 금융 확산 속에서 소비자 기대 수준은 높아졌지만 현장 체감

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신뢰받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권익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책임성을 강화하는 사전 예방 중심 감독을 추진한다. 상품별 핵심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설명의무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과제 이행에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상품 설계 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쟁조정 기능 강화에도 속도를 낸

다. 그는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하고 국회와 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 노력을 적극 지원해 소비자 권리 구제 기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금융상품의 구조와 조건이 복잡해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설명의무 강화와 정보 제공 방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금융 피해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만큼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오늘 논의된 건의사항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시민·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



metro

>> 1면 ‘K-바이오 블록버스터’서 계속

‘AI 바이오 R&D’ 수면 위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 장관은 “과거 제네릭의약품 중심에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등을 거쳐 이제는 혁신 신약 개발 국가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비임과 임상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주기 협업 체제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부처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 현장에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분야의 성장을 위해 ‘데이터 개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범부처 AI 바이오 R&D’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세경 기자·이청하 기자 seilee@

커지는 신용 경고음... 기업 돈줄 막히면 한국 경제 '발목'

중동 전쟁 확산에 유가 불안 커져 인플레이 압력에 급리인하 지연 가능성 실적 부진 기업 신용등급 하락 압박 회사채·CP 차환부담 돈줄 경색 조짐 투자위축 넘어 韓 경제 부담 가중

기업들이 '신용 강등 주홍글씨'를 받아들면 기업들의 조달 금리가 올라가고 부도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뜰이나 매출이 줄고 부실이 늘어 신용 등급이 낮아지는 건데, 기업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용 등급 하락 기업이 늘어나 '도미노 부도' 등으로 이어진다면 이미 부동산 부실, 가계 부채 증가, 내수 부진 등으로 체력이 허약해진 한국 경제에 또다른 '위기 뇌관'이 될 수 있다.

◆중동 전쟁발 신용 경고음 커졌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 국내 신평사들은 지정학적 갈등과 인플레이션에 경고음을 내고 있다. 24일 크레딧 시장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026년 신용테일 리스크(tail risk·확률은 낮지만 발생하면 파괴력이 큰 위험)로 '지정학적 균열'과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도 중동

국내 3대 신용평가사 '부정적' 등급전망

부정적 (28개사)	LG화학(AA+, 석유화학)	여천NCC(A-, 석유화학)
	한온시스템(AA-, 자동차부품)	대동(BBB+, 농기계)
	한화솔루션(AA-, 석유화학)	비에스한양(BBB+, 건축)
	한화토탈에너지스(AA-, 석유화학)	콘텐트리중앙(BBB0, 미디어)
	SK지오센트릭(AA-, 석유화학)	에스엘엘중앙(BBB0, 미디어)
	호텔신라(AA-, 면세)	깨끗한나라(BBB0, 제지)
	현대엘리베이터(A+, 승강기)	에코프로비엠(A0, 이차전지소재)
	동아에스티(A+, 제약)	풀무원식품(A-, 식품제조)
	포스코엔씨(A+, 건설)	신한자산신탁(A-, 신탁)
	HD현대케미칼(A0, 석유화학)	SK어벤스드(BBB+, 석유화학)
하향검토(27개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A0, 2차전지소재)	여천NCC(A-, 석유화학)
	한국자산신탁(A0, 신탁)	제이알글로벌리츠(A-, 부동산투자)
	SK실라스(A0, 보안)	한솔홀딩스(BBB0, 건축자재)
	대우건설(A0, 건설)	JTBC(BBB0, 방송)
	SK디앤디(BBB0/부동산개발)	SK실트론(A+/반도체)
	*BBB-등급 이상, 무보증 선순위채, 보험지급능력 평가 기준	
	자료/신용평가 3사(한신평·나신평·한기평)	

전 확산과 유가 상승발 인플레이션이다. 무디스는 미국과 유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과 아시아 지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토 내부 분열이나 대형국가 연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본 유출과 유동성 경색이 신용시장으로 빠르게 전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위험 프리미엄 상승은 특히 국경 간 노출이 크거나 도매자금 의존도가 높은 저신용 차주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S&P도 "한국은 중동산 원유와 가스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가격 상승이나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관련 산업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국신용평가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중동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국내 주요 산업들의 경영환경 전반에 중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급등, 에너지 수급 불안 등 실물경제 충격을 촉발한다"고 했다.

높아진 금리 기조 변화 여부도 기업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0달러를 넘나드는 정유가격이 시장(물가)에 반영되는 시기는 4, 5월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해 금리를 밀어 올릴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 시점이 밀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준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 커졌다"며 "고금리 기조가 계속될 경우 기업의 재무부담가중 등 신용 등급이 낮아지는 추이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기업 대출 금리는 4.15%다. 대기업(4.09%) 대출 금리가 0.01%포인트(p) 올랐지만, 단기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중소기업(4.21%) 대출 금리가 0.03%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0.01%p 떨어졌다.

◆신용 리스크,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

기업신용등급으로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등급이 결정된다. 이 때문에 기업 신용등급(회사채 등급 하락)이 떨어지면, 차환이나 신규 발행이 어려워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다. 상황

이 더 악화하면 휴플러나 태영건설처럼 기업구조개선(위크아웃)이나 기업회생 단계를 밟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등급이 중동 전쟁으로 악화된 실적과 침체한 자금 조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올해 2분기 이후에는 신용등급 강등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투자은행 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실적 저하 폭이 커지고, 시중 금리 오름세가 지속하면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사업 경쟁력이 낮고 부채 부담이 큰 기업의 신용 위험이 특히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장 경보음도 울리고 있다. 국내 신평평가 3사에 따르면 현재 '부정적' 전망 기업은 28개사, '하향 검토' 대상은 3개사다.

기업 신용등급 하락은 가계나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 '신용등급 하락 → 자금 조달 어려움 → 투자 위축 → 실적 악화 → 신용등급 추가 하락'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갈 길 바쁜 경제 회복이 더 늦어질 수 있는 셈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건설업계 덮친 '3高' 쇼크... 공사비 급등에 침체 장기화

〈고유가·고환율·고금리〉

유가 급등에 공사비 상승 불가피 고환율·고금리 겹쳐 수익성 악화 중동 발주 중단 등에 침체 장기화

중동 위기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건설경기 침체도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공사비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가가 급등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가 전쟁 이전인

지난달 27일 71.2달러에서 이달 13일 145.5달러로 두 배 이상 급등했고,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유(WTI)도 40% 이상 뛰며 100달러 수준까지 올랐다.

지난 23일(현지시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가능성 발언에 장중 14% 넘게 급락하는 등 유가 변동폭이 롤러코스터인 상황이다.

이번 중동 위기에서 가장 큰 위협요인은 유가다.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유가의 상승을 야기했지만 원유의 유통 자체는

우회 수출 등을 통해 큰 문제가 없었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중동 위기는 원유의 생산은 물론 유통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중동 지역의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건설산업의 경우 유가가 20%만 상승해도 토목공종은 7%, 건축공종은 4%의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공사비 원가에서 유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요인은 건설중장비에 활용되는 유류비다. 기계경비의 30% 수준을 차지하며, 토목공종의 경우 기계경비의 비중이 15%에 달한다. 이외에도 윤활유 및 아스팔트 계열의 석유화학제품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으며, 건축공종 역시 철근과 시멘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원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고유가에 고환율과 고금리까지 가중됐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전일 원·달러 마감 환율은 1517.3원으로 증가 기준 지난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자 금리 인하는 요원해졌고, 중장기 금리는 오히려 상승세다.

김 연구위원은 "현금흐름의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자비용 상승도 건설업체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중동 위기가 장기화되어 과거 석유파동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

전국 최고 수준의 기업지원과 최적의 산업입지로 성공이 보장되는 도시, 포항







입체적 광역교통망과 물류인프라, 풍부한 R&D환경과 우수한 기술인력 천혜의 해양관광자원과 체험형 해양문화공간 조성까지- 환동해중심도시 포항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창의 융합 혁신 포항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정부, 적극개입으로 추가상승 경계

환율, 1500원대 초읽기

중동사태 장기화에 원화값 하락
유가·에너지 수급 불안감 커져
트럼프-이란, 협상 여부 엇갈려
달러당 1500원 흐름 지속될 듯
당국 개입에 상승폭 제한 예상

원·달러 환율이 연일 1500원 전후에 머무르며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중동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유가 상승 및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권 국가의 통화값이 하락한 영향이다.

◆ 달러당 1500원... 금융위기 이후 최고
2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22.1원 내린 달러당 1495.2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30분 종가)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3일 달러당 1517.3원까지 올라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외환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경계하며 4거래일 만에 달러당 1500원 아래로 내렸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연초 대비 60원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1517.3원)보다 22.1원 내린 1495.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한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거래가가 표시돼 있다. /뉴스1

가량 상승해 달러당 1500원 전후에 머무르고 있다. '중동사태'가 장기전 국면으로 치닫으며 유가 및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환율을 밀어올렸다.
지난달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군사작전으로 촉발된 중동사태는 제한적 공습을 통한 단기 결전이라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장기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란은 미국의 핵 및 미사일 시설 공습에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으며, 이란이 주변국의 미군 주둔지와 주요 도시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까지 감행하면서 중동사태는 확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 '에너지전쟁'으로 번진 중동사태
이란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한 '에너지 전쟁'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2일(현지시간)부터 해협을 봉쇄하고 유조선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생산량의 20~30%가 유통되는 경로로, 한국·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가 수입하는 원유 대부분이 이 지역을 경유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중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두바이유'의 운송량은 크게 감소했으며, 주요 원유인 서부텍사스

유(WTI)와 브렌트유의 선물 가격도 배럴당 90~10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 중동사태 발발 이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상승한 가격이다.
중동사태가 '에너지 전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한국 원화, 일본 엔화, 대만 달러 등 동아시아 국가의 통화값은 빠르게 하락했다. 제조업과 전력이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는 만큼,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적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원화값은 연일 달러당 1500원 전후에 머무르며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지속 중이며, 엔화값은 달러당 160엔을 목전에 두며 지난 2024년의 '초엔저' 수준까지 하락했다. 대만 달러의 가치도 작년 4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렸다.
◆ '물밀협상' 한창... 고회환율 우려 지속
유가 상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 기반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트럼프는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8시간 내에 협상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시작으로 국가 기반시설을 초토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사시설을 넘어 민간 인프라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이란과 생산적 대화를 나눴으며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하기로 했다"라면서 한 발 물러났지만, "발전소를 공격한다면 발전소 복구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라고 맞섰던 이란 측은 협상 사실을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상군 투입 등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우리 정부와 외환당국은 환율 상승을 경계하며 적극적인 개입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가타야마 쓰스키 일본 재무상과 만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지난 22일 지명된 신현승 신임 한국은행 총재 지명자도 지명 소감에서 "물가와 성장, 금융 안정을 감안한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라며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고회환율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면서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현실화하고 있어서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고유가 장기화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달러 강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당국의) 개입 경계감으로 환율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달러당 1500원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올해 실질적 성과 창출하는 변곡점으로”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이사회 재무제표·정관 일부 변경 등 승인 연간 배당금 1만원·2% 자사주 소각도

포스코홀딩스가 2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제58기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지난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산업 경기 둔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를 양대 축으로 하는 '2Core' 사업의 성장 기반을 다졌다”고 말했다.
이어 장 회장은 “2026년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변곡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올해 ▲북미·인도 중심의 철강 합작투자 실행으로 수익성 확보 ▲아르헨티나 리튬 상업 생산 개시 및 호주 리튬 광산 이익 기여를 통한 이차전지 소재 투자 결실 ▲에너지·식량 등 인프라 사업의 밸류체인 확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장 회장은 또 성장의 전제조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제58기 포스코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건으로 안전을 강조하며,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과 AI·로봇을 접목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사내·외 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신임 사외이사는 글로벌 마케팅 및 경영 전문가인 김주연 전 P&G 일본·한국지역 부회장이 선임됐고, 임기가 만료된 김준기 사외이

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됐다. 사내이사로는 정석모 사업시너지본부장이 신규 선임됐으며, 이주태 미래전략본부장과 김기수 미래기술연구원장은 재선임됐다.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는 사장은 가타야마 무이사로 선임됐다.
주주총회 이후 열린 포스코홀딩스 이사회에서는 유진영 사외이사 이사회의장으로 선임됐다. 유 의장은 LG화학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지낸 이차전지 및 첨단소재 분야의 신기술 개발 전문가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2025년도 재무제표와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등 안건을 승인받았으며, 2025년 기말 배당으로 주당 2500원을 확정해 연간 배당금 1만원을 결정했다. 아울러 발행주식 총수의 2%에 해당하는 약 6351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도 승인받아, 지난 2024년 7월 발표한 '3년간 총 6% 자사주 소각' 계획을 이행하게 됐다. /유혜영 기자 dhalehdhale@metro



“토털 에너지 기업 전기 사업자 포지션 원년”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

핵심사업 집중, 재무 건전성 강화 기술·설비 개선, 본원적 경쟁력 제고
SK이노베이션이 대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운영 혁신과 미래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주형욱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사진)는 24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제19차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를 토털 에너지 기업으로서 전기 사업자의 포지셔닝을 공고히 해나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본원적 경쟁력과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책임감 있는 경영과 투명한 소통으로 주주 여러분께 더 큰 가치를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주대표는 주총에서 올해 경영 방향으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핵심 사업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고 순차입금 감축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한다. 이어 시장과 고객 관점에서 기술과 설비를 개선하고 전사적인 고장비 절감과 운영 혁신을 통해 본원적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배터리·전기·에너지 솔루션 등 성장 영역의 기술과 역량을 강화해 전기화와 AI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 성장 기반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주주총회에서는 총 6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장용호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은 비롯해 김주연 사외이사 재선임, 이복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재선임, 정관 일부 개정,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제19기 재무제표 승인 등이 처리됐다. 새로 사내이사 선임된 장 총괄사장은 에너지·화학 분야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룹차원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이끌어온 만큼 SK이노베이션의 리밸런싱과 재무구조 안정화 과정에서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선임으로 SK이노베이션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은 60%를 넘기게 됐다. 정관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 총실의 의무 명시, 집중투표제 배제 규정 삭제, 전자주주총회 도입,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근거 신설 등 주주 권의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담겼다.
주대표는 배터리 자회사 SK온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기존 기초를 재확인했다. 그는 “배터리 사업에 대한 의지와 전략 방향은 변함이 없다”며 “전기차 수요 둔화 상황을 감안해 수익성 위주의 주·생산 체계로 전환하고 있으며 단순 물량 확대보다 수익성 중심의 선별 대응과 기술 개발을 통해 제품·원가 경쟁력을 함께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 수주에 이어 올해도 북미 ESS 사업 확대를 중요한 전략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보다 6조265억원 늘어난 80조2961억원, 영업이익은 930억원 증가한 4487억원을 기록했다. 주대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 등 불확실성이 커진 환경 속에서도 SK E&S CIC와의 통합 시너지 창출, 운영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본원적 경쟁력 강화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



SK하이닉스, 12조 규모 EUV 장비 도입

(극자외선)

2027년 말까지 2년 걸쳐 순차 도입 차세대 AI 메모리 생산능력 확대

SK하이닉스가 12조원 규모의 극자외선(EUV) 장비를 도입하며 차세대 인공지능(AI) 메모리 경쟁에서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낸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동시에, 차세대 D램 공정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선제

투자로 풀이된다.
24일 SK하이닉스는 네덜란드 ASML로부터 11조9496억원 규모의 EUV 스퀀러 장비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장비는 2027년 12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순차 도입되며, 설치·개조 비용을 포함해 개별 장비 인도 시점마다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EUV 장비는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의 핵심 설비로, 확보 여부 자체가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좌우한다. 현재 해당 장비는 ASML이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어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 투자는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특히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 미세공정 기반 고집적 설계가 필수인 만큼, EUV 도입이 곧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금융 연금력



수익률



시장점유율



안정성



전문성



고객편의

당신의 퇴직연금에 필요한 '모든 능력'

삼성생명 DC/IRP

직장인에게 퇴직연금은
그냥 돈이 아니니까
수익률과 안정성, 전문성과 고객편의까지

퇴직연금이 갖춰야 할 모든 능력
튼튼한 삼성생명에 있습니다.

· 투자자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삼성생명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까지" (운용되는 금융 상품 판매 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실적배당형(펀드) 상품]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5-07477호 \(2025.11.06-2026.11.05\)](#)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
삼성생명

이 대통령, 한노총 만나 ‘노동 3권 보장·양극화 해소’ 강조

간담회 열고 노동계 의견 청취
“양극화 문제, 힘의 균형 회복해야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제도개선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들을 만나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 안의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과 회원조합 위원장 등 29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를 극복하는 건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존중과 신뢰로, 노동과 함께 여는 새로운 성장’이란 슬로건 아래 노동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해 마련했다. 대통령이 한국노총 위원장뿐 아니라 회원조합 위원장들까지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지만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

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과 같은 성별 차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영계에선 고용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다’라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두 의견이 크게 부딪히고 있다”며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또 남녀 간에,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을 향해 “국정 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계 관계자 여러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한국노총이 참여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로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미래 지향적 논의가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 대화 재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한국노총에 특별히 감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산업재해 예방은 반짝하고 마는 캠페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강도 높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일터에서 일하다 죽는 비극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넘어서지 못한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도 산업현장 안전 문제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李 “대형빵집 상속세 회피 악용” 보완 지시

중기부에 상속세 인하 타당성 살피고
가업·기업 상속 비교해 제도보완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가업상속공제의 전면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며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국제청장

에 질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설명을 듣고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제과점업도 해당된다. 최근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늘고 있는데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10년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기준에 대해 묻고, 가업 승계가 잘못 활용되는 것 아니냐면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 사례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가업 상속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꼼수 감세에 대해 지적했다”며 “중기부 장관에게 상속세 인하가 타당성이 있는지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비교해서 면밀하고 촘촘하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5월 1일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특수 고용 노동자, 플랫폼 종사

자 등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5월 1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만드는 공휴일법을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았지만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적었다.

그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 오늘 법안 처리가 뜻깊다”고 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watv.org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숭고한 십자가 희생을 기억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대속(代贖·죄값을 대신 치름)하신 사랑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런데 질문이 남습니다.

‘그 위대한 희생이 나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날 밤, 유월절에 그 해답을 담아두셨습니다.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시더라... 이것(포도주)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17~28절)

새 언약 유월절은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십자가 보혈의 축복을 ‘입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숭고한 사랑이 당신의 구원과 영생으로 완성되는 자리, 2026년 새 언약 유월절 대성회에 초대합니다.

참가문의 031-738-5999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사도들이 지킨 새 언약 유월절 유월절(逾越節)은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라는 뜻으로 성력 1월 14일(양력 3~4월경) 저녁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전날,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며 죄 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는 새 언약으로 세우셨다. (출애굽기 12장,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6장) 국내외 400만 성도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새 언약 유월절을 성경 원형대로 복원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키고 있다.

유월절 더 알아보기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 Premier 발행어음
사전에 약속한 수익으로 투자를 안정적으로

발행어음은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신용등급 AAO (2026.01.12, 한국신용평가)



신한 Premier
발행어음 더 알아보기

[투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은 <자산가격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신한투자증권(AAO, 2026.01.12, 한국신용평가)의 신용위험(부도,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격등급은 AAA/AA-A-BBB 각 +,0,- 순으로 구분) ※발행어음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기일 이전 출금 요청 시 당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중도상환 수익률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중도상환 수익률은 상품설명서 또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어음은 회사 자기자본의 200%이내로 발행한도를 제한하므로 발행한도 초과시 신규 또는 추가 매수가 사전 예고없이 중단될 수 있으며, 그 밖의 당사 사정에 의해 발행이 중단되어 매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투자소득 과세는 발행어음 매도시점(중도매도 또는 만기매도)에 발생하여 원천징수됩니다. ※발행어음은 매수 건별 전액 매도만 가능합니다. ※발행어음 매매취소는 당일 매매내역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용등급 변동 사항은 한국신용평가(<https://www.kisrating.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6-0271호 (2026.02.10~2027.02.02)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0711호 (2026.02.13~2027.02.12)

접속장애·환율오류 등 사고 잇따라 제4인뱅 설립, '안정성' 주요 화두

금감원, 5년간 전산사고 163건 토스 64건, 카뱅 64건, K뱅 35건 인터넷은행 심사시 기술혁신 보다 '안정성' 비중 확대 계기 될 수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접속장애와 환율 정보 오류와 같은 전산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터넷은행의 시스템 안정성이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4인터넷은행 설립 논의가 재점화하는 시점에서 전산 안정성이 주요 인가 요인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올해 2월까지 5년여간 전산사고 건수는 총 163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토스뱅크 64건, 카카오뱅크 64건, 케이뱅크 35건이다.

최근 카카오뱅크는 지난 17일 오후 3시29분쯤부터 26분간 접속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뱅크는 그에 앞서 진행한 프로그램 업데이트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업데이트를 취소한 뒤 서버를 재시작함으로써 1차적으로 서비스를 정상화했다.

그런데 실제 서비스 지연이 발생했던 핵심 원인은 업무 담당자가 앱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을 상향 조정하면서 부하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이에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쯤 모니터링 기능을 다시 낮췄는데, 이 과정에서 8분간 앱 접속 지연이 재차 발생했다.

카카오뱅크는 두 차례에 걸쳐 오류가 발생했지만, 오지급이나 착오 송금, 이중 결제 등 직접적인 금융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앱 접속이 안된 탓에 공모주 청약 못했다는 등 고객 민원이 총 184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뱅크는 "고객 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 계획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토스뱅크는 엔화 반값 환전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엔화 환율이 실제 시장의 절반 수준으로 고시되면서 약 5만건, 총 283억8000만원 규모의 환전이 이뤄졌다. 일본 현지에서도 약 600건(330만원)이 결제됐다.

이에 따라 제4인터넷은행 설립 논의에서도 내부 통제 및 시스템 안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인터넷은행 설립 논의시 ▲혁신성과 포용성 ▲자본조달 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이 핵심 평가 요소로 꼽힌다. 다만 영업점 없이 비대면으로만 운영되는 인터넷은행의 특성상 전산사고 등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도 인가 심사에서

함께 들여다보는 요소다. 금융당국도 과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에서 위기상황 대응 체계와 대주주의 자금 공급 계획 등을 보완적 심사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잇단 사고가 제4인터넷은행 심사에서 '기술 혁신'보다 '운영 안정성'의 비중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단순히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하는 역량만으로는 부족하고, 장애 예방 체계와 실시간 모니터링, 복구 프로세스, 내부통제 수준까지 입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가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사 4곳 모두에 대해 자본력 미흡 등을 이유로 불허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재추진 과정에서는 사업 지속가능성과 함께 시스템 안정성 검증도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점포가 없는 대신 앱과 시스템이 곧 영업점인 만큼, 전산장애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신뢰 훼손으로 직결된다"며 "제4인터넷은행 인가 논의에서도 혁신성 못지않게 장애 대응 능력과 내부통제 체계를 얼마나 촘촘히 갖췄는지가 핵심 평가 항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김민 새마을금고재단 이사장(가운데)이 청년누리 장학생들과 함께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MG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재단

MG새마을금고, 대학생 100명에 장학금

‘MG 청년누리 발대식’ 성료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하 새마을금고재단)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MG홀에서 '2026년 MG 청년누리 발대식'을 성료했다고 24일 밝혔다.

MG 청년누리 장학사업은 학업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비성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2026 MG 청년누리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 100명이 참여해 ▲장학증서 수여식 ▲활동 안내 ▲팀 활동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장학

생 간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단순한 오리엔테이션을 넘어 장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디자인 씽킹 교육, 취업 특강, 금융 교육 등이 함께 진행됐다.

선발된 청년누리 장학생에게는 오는 12월까지 매월 3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사회공헌 참여형 프로젝트, 역량 강화 특강, 멘토링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혜택도 제공된다. 청년들이 나눔과 협력의 가치를 경험하며, 실질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중앙회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중동위기’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불가피

“건설산업, 유가 20% 상승시 토목 7%, 건축 4% 원가 상승”

중동 위기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건설경기 침체도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공사비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가가 급등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가 전쟁 이전인 지난달 27일 71.2달러에서 이달 13일 145.5달러로 두 배 이상 급등했고,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유(WTI)도 40% 이상 뛰며 100달러 수준까지 올랐다.

지난 23일(현지시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가능성 발언에 장중 14% 넘게 급락하는 등 유가 변동폭이 롤러코스터인 상황이다.

이번 중동 위기에서 가장 큰 위협요인은 유가다.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유가의 상승을 야기했지만 원유의 유통 자체는

우회 수출 등을 통해 큰 문제가 없었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중동 위기는 원유의 생산은 물론 유통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중동 지역의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건설산업의 경우 유가가 20%만 상승해도 토목공종은 7%, 건축공종은 4%의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공사비 원가에서 유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요인은 건설중장비에 활용되는 유류비다. 기계경비의 30% 수준을 차지하며, 토목공종의 경우 기계경비의 비중이 15%에 달한다. 이외에도 윤활유 및 아스팔트 계열의 석유화학제품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으며, 건축공종 역시 철근과 시멘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원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야구 시즌, 반값 티켓·간식 할인 받아요”

구단별 신용카드 혜택

KB국민 두산베어스 홈경기 50% 삼성 '라이온즈카드' 입장료 50% 신한 LG트윈스·한화이글스 카드 롯데 자이언츠 입장권 10% 할인

2026년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구단별 경기 입장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입장권 혜택뿐 아니라 팬 상품(굿즈)·식음료 할인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2026년 KBO 리그 개막을 앞두고 카드사들이 구단 제휴 카드를 활용해 경기 입장권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KB국민카드는 두산베어스 구단과 제휴해 '두산베어스 KB카드'를 출시했다. 두산베어스 홈경기 티켓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단, 할인 금액은 전월 실적에 따라 월 1만원 또는 2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두산베어스 홈구장 식음료 20% 할인 혜택도 마련됐다. 야구장 전용 주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인 '배달타자'를 활용해 잠실야구장에서 식음료를 구매하거나 잠실야구장 내 식음료 업체를 이용하는 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삼성카드는 삼성라이온즈팬을 대상으로 '삼성라이온즈카드'를 내놨다. 삼성카드는 삼성라이온즈카드를 이용하면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입장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금액은 전월 실적에 따라 월 1만원 또는 2만원



지난 22일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6 KBO리그 시범경기 LG트윈스와 삼성라이온즈의 경기에서 관중들이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 /뉴스IS

으로 제한된다.

삼성라이온즈몰, 삼성라이온즈팀스토어 이용 시에도 반값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매장에서 식음매장 이용 고객에게는 10%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LG트윈스, 한화이글스 팬이라면 신한카드를 주목할 만하다. 신한카드는 'LG트윈스 신한카드', '한화이글스 신한카드'를 선보인다.

LG트윈스 신한카드 이용 고객이라면 LG트윈스 홈경기 티켓 예매 시 3000원 할인 혜택(일회 제공)을 횡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한화이글스 신한카드 이용 고객은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3회 한화이글스 홈경기 티켓 5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롯데카드 '로카인 메가시티(LOCA in MEGACITY)'를 이용하면 롯데디자인츠 입장권 10% 할인받을 수 있다. 월

할인 한도는 3000원이다. 이 외에도 롯데월드 부산, 스카이라인루지 부산 등과 같은 테마파크 이용, 온라인·오프라인 쇼핑 이용 할인 혜택도 만나볼 수 있다.

공식 제휴 카드가 없는 곳도 사업자 표시전용카드(PLCC) 등을 통해 야구장 입장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쓱닷컴(SSG.COM) 삼성카드'는 전월 실적을 충족한 뒤 입장권을 예매하면 최대 10%까지 쓱머니를 적립해 준다. 적립된 쓱머니를 활용해 SSG랜더스 예매처인 쓱닷컴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경기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현대카드의 '놀(NOL)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0%가 NOL 포인트로 적립된다. 키움히어로즈의 공식 예매처가 놀(NOL) 티켓인 만큼, 해당 포인트를 활용해 티켓 구매 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더샵 프리엘라’ 특공 경쟁률 78대 1 기록

75가구 모집에 5859명 몰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더샵 프리엘라' (문래진주아파트 재건축) 특별공급 경쟁률이 78대 1을 기록했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더샵 프리엘라 특별공급 75가구 모집에 5859명이 몰렸다.

유형별로 생애최초가 31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혼부부 2373명, 다자녀가 276명, 기관추천 17명, 노부모부양 13명이 뒤를 이었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59㎡A형 14

가구 모집에 2736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약 195대 1로 가장 높았다. 소형 평수인 44㎡ 타입에 6가구 모집에 1100명 이상의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신청자가 몰리며 중 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더샵 프리엘라는 포스코이앤씨가 문래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다. 영등포구 문래동 5가 일원 지하 3층~지상 최고 21층, 6개 동, 총 324가구의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4~84㎡ 13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삼성·SK, '펨토초 레이저' 승부... HBM4 수율 개선 본격화

삼성전자 펨토초 기반 장비 확대
낸드플래시 등 추가공정 전환 검토

SK하이닉스 신규장비 평가 단계
HBM4·400단 이상 낸드 적용 예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 핵심 공정인 '펨토초 레이저' 도입에 나서면서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수율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초박형 웨이퍼 대응을 위한 공정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기술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펨토초 레이저를 활용한 차세대 웨이퍼 절단 공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1000조분의 1초 단위의 초단파 레이저를 이용해 웨이퍼를 절단하는 방식으로 HBM4 시장 대응 전략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 내부. /삼성전자

특히 해당 기술은 별도의 표면 절삭이나 물리적 충격 없이 절단이 가능해 20~30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초박형 웨이퍼도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으며 열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펨토초 레이저 기반 웨이퍼 절단 공정에 필요한 장비 최소 10대를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문에는 웨이퍼에 흠을 내는 그루빙 장비와

한 번에 절단하는 풀컷 장비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장비는 천안 캠퍼스에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존 절단 방식을 보다 정밀한 레이저 공정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분기 반도체 절단 공정에 펨토초 레이저 기술을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장비는 수대에 불과했으나 성능과 생산성 개선 성

과를 입증해 확대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 및 시스템반도체 라인에도 펨토초 절단 공정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고성능 제품군에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생산 효율을 높이는 한편 장비 수급 지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펨토초 레이저 장비의 주요 공급사는 국내 기업 디오테크닉스와 일본 디스코가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장비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SK하이닉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HBM4 용 웨이퍼 절단 공정에 펨토초 그루빙 및 풀컷 기술 도입을 검토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레이저 장비 협력사들과 신규 장비에 대한 공동 평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일부 협력사와

는 기술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SK하이닉스는 그간 기계식 절단 혹은 스텔스 다이싱 기술을 사용해 웨이퍼를 절단해 왔다. 다만 첨단 반도체용 웨이퍼가 점점 얇아지면서 이에 적합한 새로운 절단 방식 도입이 필요해졌다.

회사는 HBM4뿐 아니라 400단 이상 3D 낸드에 적용할 예정이다. 400단 이상 낸드는 데이터 저장영역과 구동회로를 별도 웨이퍼에 제작한 후 결합하는데 두께 감소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메모리사들이 펨토초 레이저 공정확대 검토 단계에 있는 만큼 단기간 내 HBM4 수율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공정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의미 있는 기술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롯데-태광, 롯데홈쇼핑 지배구조 갈등 재점화

태광, 대표 재선임·이사회 재편 반발
"계열사 밀어주기를 하겠다는 의도"

롯데홈쇼핑의 1, 2대 주주인 롯데그룹과 태광그룹의 오랜 갈등이 또다시 격화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24일 서울 양평동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김재겸 대표이사 재선임과 외부 감사위원 3인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은 최소한의 견제장치도 없었던 상태에서 노골적으로 계열사 밀어주기를 하겠다는 의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태광산업은 이날 이사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롯데홈쇼핑(당시 우리홈쇼핑)이 롯데그룹에 인수된 2006년 직후부터 20년에 걸쳐 롯데 계열사 지원에 동원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롯데 계열사들의 '현금 인출기' 역할을 맡으면서 실적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홈쇼핑은 롯데쇼핑 자회사인 한국에스티의 잡화 브랜드 '사만사타바사' 재고를 판매하기 위해 이달에만 20

회 방송을 편성했다고 태광산업은 덧붙였다. 일반 잡화 상품 방송이 월 5~8회 수준인 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성 빈도다. 해당 제품은 롯데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이 직접 국내 도입을 주도한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는 게 태광산업 측 설명이다.

또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납품업체의 상품 공급과 소비자 배송 관련 업무의 상당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롯데글로벌로지스에 맡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물류 업무 상당 부분을 롯데글로벌로지스에 맡기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거래 규모는 약 1560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327억원, 2022년 357억원, 2023년 299억원, 2024년 278억원, 2025년 299억원 수준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35.6%로, 일반적으로 내부거래 규제 기준으로 거론되는 3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만 이에 대한 해석은 그룹 시너지 차원인지 특정 계열사 일감 밀어주기인

지 엇갈리고 있다.

롯데홈쇼핑 지분 약 45%를 보유한 태광산업은 내부거래 확대가 주주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롯데 측은 그룹 내 사업 연계에 따른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의 지분 45%를 보유한 태광그룹 계열사들의 주주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롯데홈쇼핑은 납품업체의 상품 공급과 소비자 배송 관련 업무의 상당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롯데글로벌로지스에 맡기며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 승인 부결된 이후에도 내부거래를 지속한 것은 상법 및 회사 정관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른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롯데 측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됐다"며 "향후 지배구조와 내부거래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

트롬 워시타워, 글로벌 판매 300만대 돌파

LG전자 내달 구매 이벤트 진행

LG전자 트롬 워시타워가 글로벌 누적 판매량 300만대를 돌파하며 세탁 가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국내에서 처음 출시된 이후 약 6년간 1분에 1대 이상씩 팔린 셈이다.

24일 LG전자는 '트롬 워시타워' 판매량이 최근 320만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워시타워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간편하게 사용하고 공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두 가전을 타워형으로 결합한 제품으로 인기를 얻었다. 현재 세계 77개국에서 판매 중이다. 지난해 말 300만대에 이어서 2개월여 만에 판매량이 20만대를 늘었다. 국내에서도 지난달까지 120만대가 팔렸다.

LG전자는 지난해 LG 워시타워의 AI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세탁량을 파악해 3초 만에 코스별 예상 종료 시간을 알려주는 'AI 타임 센싱', 사용 패턴을 학습해 쓸수록 정확하게 예상 건조 시간을 안내하는 'AI 시간 안내' 기능을 갖췄다. 또 AI 세탁·건조가 끝나면 세탁 결과



LG전자 트롬 워시타워. /LG전자

를 리뷰해 주는 'AI 세탁 리포트'를 제공한다.

한편, LG전자는 글로벌 누적 판매량 300만대를 기념해 오는 4월부터 국내 LG 워시타워 구매 고객에게 ▲캐시백 증정 ▲구독요금 할인 ▲멤버스십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해외에서도 잇달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보스턴다이나믹스, 美 민간 싱크탱크 참여

피지컬 AI·로보틱스 기업 대표 참여

현대자동차그룹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가 미국의 로봇 전략과 방향을 수립하는 민간 '싱크탱크'에 주요 관계자로 참여한다.

2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미국 민간 싱크탱크 '특별경쟁연구프로젝트'(The Special Competitive Studies Project·SCSP)는 최근 첨단제조 로봇 국가안보위원회를 출범하고, 미국이 로봇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보스턴다이나믹스는 미국 내 피지컬AI



I·로보틱스 기업의 대표로 참여하는 것으로, 브랜던 솔만 부사장이 위원(사진)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1년간 진행된다. 차세대 로봇 기술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핵심 설계자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을 통해 연구실과 현장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보스턴다이나믹스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미국의 로보틱스 기술 경쟁력 강화와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칠 계획이

다. 그동안 확보한 로보틱스 연구 사례와 산업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제조, 물류, 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위원회 참여를 통해 미국 로보틱스 산업의 규제, 지원 정책 수립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로보틱스 산업이 AI에 이어 글로벌 패권 경쟁의 새로운 격전지로 부상하면서 정부 차원의 로봇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브랜던 솔만 보스턴다이나믹스 부사장은 "로보틱스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정책 방향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HD현대, 해양 AI 자율운항 실증 추진

전라남도-KOMSA 등 업무협약

HD현대가 선박 안전 강화를 위해 해양 인공지능(AI) 자율운항 실증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HD현대는 24일 전라남도청에서 조선부내 계열사인 HD현대상호와 아비커스가 전라남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국립목포대학교와 함께 '전라남도 해양 AI 자율운항 실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제 해양 선박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소형선박의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사고 예

방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HD현대는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춘 AI 기반 자율운항 솔루션 개발과 기술 실증을 주도한다. 아비커스는 소형선박 특화 AI 충돌예방 시스템 개발과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을 맡고 HD현대상호는 실증 선박에 대한 AI 기 자체 적용 지원과 지역 내 양산 기반 조성을 담당한다.

참여 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라남도의 해양 인프라와 공공기관의 검사·표준화 역량, 대학의 연구 역량, HD현대의 기술력과 산업화 역량을 결합해 협력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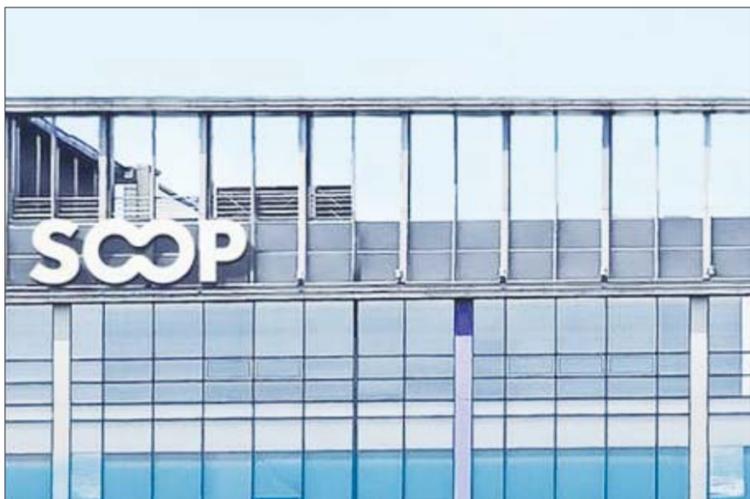
/원관희 기자 wkh@

치지직 공세에도 굳건한 SOOP... 게임 플랫폼 경쟁 격화

LCK 중계 양강 구도 본격화
유튜브는 하이лай트로 재편
치지직, 네이버 연계 확대
SOOP, 참여형 시청 강점
팬덤·채류시간이 승부처

국내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 중심에는 네이버 '치지직'과 SOOP(쑤)이 있다. 트위치 철수 이후 빠르게 재편된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e스포츠 중계권과 게임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난해 12월 LCK 중계권 재편이 발표되면서 양사의 경쟁 구도도 한층 선명해졌다. 이제 승부는 단순한 플랫폼 존재감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게임 팬덤과 스트리머를 붙잡아 두느냐의 문제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분기점은 LCK의 새 파트너십이다. 라이엇게임즈는 지난해 12월 네이버와 SOOP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CK 국내 생중계는 두 플랫폼에서만 제공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유튜브 공식 채널은 하이лай트와 바하인드 콘텐츠를 이어가지만, 국내 생중계의



주식회사 SOOP(쑤) 판교 본사.

/SOOP

중심축은 사실상 치지직과 SOOP으로 넘어갔다.

퍼스트 스탠드, MSI, 월드 챔피언십 같은 국제대회는 기존처럼 유튜브 시청이 가능하지만, 국내 한국어 LCK 생중계 시장만 놓고 보면 두 플랫폼의 영향력은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양사의 경쟁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중계권을 나눠 가진 데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라이엇게임즈와 두 회사는 이번 협력을 단순한 송출 계약이 아니라

온오프라인 팬 접점을 넓히는 출발점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LCK 공식 스폰서로서 롤과 크네이밍 권리를 확보해 2026년부터 경기장 명칭을 치지직 롤파크로 바꿀 계획이다. 전용 공간과 브랜드 좌석 조성도 검토 중이다. 중계 화면 안팎에서 치지직 브랜드를 각인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대목이다.

치지직의 강점은 네이버 생태계와의 연결성이다. 경기 시청에 그치지 않고 커뮤니티와 서비스 연계를 확장할 수 있

다는 점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라이엇계정 연동을 기반으로 드롭스, 쇼핑,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 접점도 검토되고 있다. 대형 플랫폼이 가진 유입력과 접근성을 바탕으로 e스포츠를 더 넓은 라이브 서비스로 확장하려는 그림이다. 공식 중계와 이벤트형 콘텐츠, 오프라인 브랜딩을 동시에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치지직의 존재감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SOOP은 스트리머 중심 생태계와 참여형 시청 문화에서 강점을 보인다. 라이엇게임즈도 두 플랫폼이 각자의 특성에 맞춰 코스트리밍 생태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OOP은 그동안 개인 방송과 함께 보는 방식, 채팅과 후원, 팬덤 결합형 소비 구조에서 경쟁력을 보여왔다. 이번 LCK 재편 이후에도 게임단과의 스트리밍 파트너십, 코스트리밍, 이용자 참여 기능을 통해 기존 강점을 지키려는 전략이 읽힌다. 타임머신 기능, 멀티 디바이스 지원, 승부예측과 선수 투표 같은 요소 역시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결국 시장의 관심은 누가 더 오래 이용자를 붙잡아 둘 수 있느냐에 쏠린다. 중계권은 이용자를 끌어오는 입구일 뿐, 실제 승부는 채류시간과 스트리머

충성도, 팬덤 운영 능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치지직이 LCK와 오프라인 브랜딩, 네이버 연계 서비스를 앞세워 외연 확장에 나선다면, SOOP은 스트리머 친화적 문법과 참여형 소비 구조를 기반으로 방어에 나서려는 구도다. 업계에서는 이번 경쟁을 단순한 방송 플랫폼 다툼이 아니라 국내 게임 라이브 유통 주도권 경쟁으로 보고 있다. LCK 재편이 불을 붙인 승부가 앞으로는 콘텐츠 채류력과 팬덤 장악력 싸움으로 번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누가 중계권을 확보했느냐보다 누가 팬과 스트리머를 함께 묶어둘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며 "치지직과 SOOP의 경쟁은 단순 중계 싸움을 넘어 게임 콘텐츠 유통 주도권 경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우 SOOP 대표는 "지난 1년은 게임과 e스포츠를 중심으로 플랫폼 경쟁력을 다지는 동시에 스포츠, 소셜, 버추얼, 글로벌 부문의 확장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성장과 이용자 경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콘텐츠와 서비스 완성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카카오, 올리브영·무신사와 생활형 AI 확장

카카오툴즈 개편, 외부 파트너 연동
쇼핑·여행 등 생활형 서비스 강화

카카오가 '챗GPT 포카카오' 내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인 '카카오툴즈'를 개편하고 외부 파트너 협업 확대에 나섰다. 기존 카카오 계열사 중심이던 서비스 연동 범위를 뷰티, 패션, 유통, 세무, 여행, 취업, 푸드 등 생활 전반으로 넓히며 '일상 AI' 전략 고도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카카오는 24일 카카오툴즈에 올리브영, 무신사, 현대백화점, 삼점삼, 마이리얼트립, 사립인, 우리의식탁 등 각 분

야대표 파트너사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외부 파트너뿐 아니라 카카오뱅크, 카카오골프예약 등 계열사 서비스도 새롭게 연동 대상에 포함했다.

카카오툴즈는 카카오 안팎의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채팅 환경에서 연결해주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다. 그동안 선물하기, 예약하기, 카카오맵, 톡캘린더와 함께 멜론,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 중심으로 기능을 넓혀왔다. 이번 개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외부 플랫폼까지 본격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용자는 이제 챗GPT 포카카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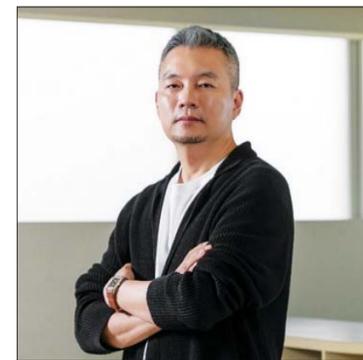
상품 추천, 여행 준비, 취업 정보 탐색, 식문화 콘텐츠 검색 등 다양한 요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건설 피부용 스크립 추천이나 봄 여행용 의류 추천 같은 질문에 대해 카카오툴즈와 연동된 파트너사 서비스를 기반으로 결과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실제 서비스 탐색과 선택까지 AI가 이어주는 구조를 강화한 셈이다.

카카오는 이용자 탐색 경험을 체계화하기 위한 기능도 추가했다. 카카오툴즈 전용 홈 메뉴를 신설해 인기 차트와 추천 서비스 같은 큐레이션 영역을 제공하고, MY 메뉴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맞춤형 에이전트 환경을 스스로 구성하게 해 활용도를 높여려는 의도로 읽힌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카카오 AI 전략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자체 서비스 연동을 넘어 외부 파트너 생태계를 붙여 AI 에이전트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이를 다시 사용자 채류와 서비스 연결로 이어가는 플랫폼 전략에 가깝다는 평가다. 카카오가 향후 더 많은 제휴사를 붙일 경우 AI 에이전트를 둘러싼 생활형 플랫폼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최빛나 기자



손면석 위메이드맥스 대표.

위메이드맥스

손면석 단독대표 체제

실행력 강화 위한 조직 재정비

위메이드맥스가 24일 손면석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제시한 '2026년 글로벌 포트폴리오 기업 도약'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재정비 차원이다. 지난해 11월 손면석 대표를 신규 선임하며 이길형·손면석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단독 대표 체제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이번 체제 전환의 핵심은 의사결정 속도다. 위메이드맥스는 매드엔진, 위메이드커넥트, 위메이드넥스트, 원웨이 티켓 스튜디오, 라이트콘 등 5대 핵심 스튜디오 체제를 기반으로 장르·플랫폼·지역별 분산 성장 구조를 구축해 왔다. 회사는 앞으로 핵심 IP와 전략 프로젝트 중심으로 의사결정과 집행 속도를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길형 대표는 각자대표 자리에서는 물러나지만 위메이드맥스 이사회 멤버로 역할을 이어간다. 대신, 자회사 라이트콘 경영에 집중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CJ올리브네트웍스, 신성통상 매장 포스 교체

클라우드 기반 POS 통합 구축

CJ올리브네트웍스는 신성통상의 차세대 포스(POS)와 키오스크 구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탭텐, 지오지아, 울젠 등 주요 브랜드를 운영하는 신성통상의 전국 1300여 매장 운영 체계를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다.

신성통상은 지난해부터 전매장을 대상으로 차세대 포스 구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사업 운영 효율을 높이고 매장 직원과 고객의 사용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기존에 분산돼 있던 포스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해 고성능, 고가용성 인프라를 구

축하고 대규모 유통 매장에 맞춘 시스템 고도화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시스템의 핵심은 기존 웹 브라우저 기반 구조를 단말기 자원을 직접 활용하는 CS 방식으로 바꾼 점이다. 이를 통해 처리 속도와 안정성을 높였고 포스와 영업관리시스템을 통합해 성능과 확장성도 강화했다. 운영 안정성 강화도 눈에 띈다.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장애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매장 운영이 멈추지 않도록 설계했다. 직원 업무 효율을 높이는 기능도 담았다. 복잡했던 기존 포스 기능을 단순화하고 화면 구성을 직관적으로 개편해 사용성을 높였다.

/최빛나 기자

KT M&S, 기업용 리본 커스텀폰 선봬

MDM 탑재해 업무 외 앱 원격 차단

KT 통신상품 유통 전문 그룹사 KT M&S의 중고폰 브랜드 '리본(Reborn)'이 기업·공공기관 업무 지원 스마트폰 '리본 커스텀폰'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리본 커스텀폰은 모바일 기기 관리(MDM)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탑재해 기업이 지정된 앱만 설치하고 업무 외 앱 사용을 원격으로 차단하는 특수 목적용 단말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기본 브라우저(크롬) 실행, 특정 인터넷(URL) 접속 제한, 개발자 모드 진입, USB 디버깅 차단, 비인가 소프트웨어 설치 방지 등 업무 집중도를 저해하는 앱을 원격 차단하

고 사전 승인된 앱만 표시되도록 제어할 수 있다.

리본 커스텀폰은 업종별 최적화 앱 구성도 가능하다. 배달·운수 업종에는 콜접수·물류 관리 앱 중심으로 구성하고, 콜센터에는 음성 녹음·설문 관리 앱 중심으로 세팅이 가능하다. 갤럭시부터 아이폰까지 국내 출시된 대부분의 단말기에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이동통신사 법인 단말과 달리 통신사 약정 없이 기존 유심(USIM)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100회선 이상 구매 시 기업별 전용 요금제 설계도 지원하고, 구매 후 180일 이내 디스플레이·배터리 등 주요 부품 결합 발생 시 1:1 신속 교환을 보장한다.

/윤휘중 기자 yhj@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며
모두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산업의 성장이 이어지도록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에너지고속도로
- 핵심 성장 산업 지원·K-밸류체인 강화
-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코스피 급락에도 이익 전망은 상향...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이달 사이드카 2거래일에 한 번꼴
올해 당기순이익 전망치 500조
중동 지정학적 변수 지속은 부담
개인·외국인 선호종목 정반대
외국인 순매도, 차익실현 성격
코스피 지분율 지속 확대 흐름

‘이란 사태’ 여파로 코스피가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
고 있다. 다만 지수 하락세에도 이익 전
망은 오히려 상향되면서 밸류에이션 매
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 수급 역시 비중 축소보다는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지분율
자체는 유지되고 있는 흐름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는 11% 하락하면서 극심한 변동
성을 겪고 있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15
거래일 동안 총 7번의 ‘사이드카’가 발동
됐는데, 4번은 매도 사이드카, 3번은 매
수 사이드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였던 2008년 10월(12회) 이후 월별 기준
가장 많은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이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흔들리는 증시와 원·달러 환율’ 관련 이미지.

약 2거래일에 1번씩 사이드카를 경험하
고 있는 셈이다.

이날도 2.74% 반등하며 6%대 급락했
던 전날과 반전된 흐름을 보였다.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
재개 사실을 밝히면서 조기 종전 기대감
확대되자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도
진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가 지속되고 있지만, 코스피의 밸류에이
션은 견조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키움증권에 따르면 2026년 코스피 선행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월 초 609조원에
서 635조원으로 약 4% 상향됐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3월 첫 주 2거래일 만에 약 20% 가까운
폭락을 통해 전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반영했고, 대외 악재 속에서도 이익 모

멘타이 견조하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이 같은 ‘주가 급락과 이익 전망 상향’의
조합은 코스피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
R) 밸류에이션상 진입 매력을 재생성하
고 있다”고 짚었다. 23일 기준 코스피의
선행 PER은 8.5배 수준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코스
피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여전히 상향 조
정되면서 올해와 내년 전망치는 각각
500조4000억원, 580조7000억원에 도달
했고, 추가적인 실적 상향 가능성도 존
재한다”고 분석했다.

물론 중동 지정학적 변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외국인도 이달에만 코
스피에서 22조2574억원을 순매도했으
며, 기관 투자자들도 5조7333억원을 털
었다. 23일에는 외국인도 기관이 하루에
만 약 7조5000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같은 날 개인 투자자들은 7조원을 순매
수하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 이달에만
26조2504억원을 사들이면서 2021년 1월
‘동학개미 운동’ 당시의 순매수세(22조
3384억원)를 뛰어넘고 있다.

개인과 외국인의 선호 종목은 정반대

로 엇갈리고 있다. 이달 들어 외국인 투
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삼
성전자(10조5393억원), SK하이닉스
(3조9920억원), 현대차(2조4670억원) 등
대형주에 집중됐으며,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과 일치한다. 같은 기
간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11조
6083억원, SK하이닉스 3조9124억원, 현
대차 3조798억원씩 사들이며 가장 많이
담았다.

다만 코스피 대형주 대부분이 지난해
부터 급등세를 보였던 만큼, 최근 외국인
의 대규모 순매도세에도 외국인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는 약 49%, SK하이닉스
는 약 5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나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코스피
순매도는 시장 비중 축소가 아닌 차익 실
현에 가깝다”며 “코스피 내 외국인 지분
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관찰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호황이
지속될 시에는 과거 최고 수
준인 43%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예상이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전쟁에도 ETF 투자 확대... 이익 확실한 기업 선별해야”

삼성증권
SFC 연도대상 시상식
유치자산 13조 돌파

SFC 채널 브랜드 파워·전문성 입증
단순 행사 넘어 ‘비즈니스 축제’ 마련

삼성증권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신라
호텔에서 투자권유대행인(SFC)들의 축
제인 ‘2026 SFC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
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탁월한 영업 실적을 기록한 상위 60명의
SFC를 초청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증권의 제휴영업채널은 최근 눈
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5년 업계
최초로 유치자산 10조원을 돌파한 데 이
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유치자산 13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
로, 삼성증권 SFC 채널의 강력한 브랜
드 파워와 전문성을 입증하는 수치다.

이번 시상식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선
‘비즈니스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연
도대상 시상식 및 신규 Black & Gold
인증식을 통해 최우수 성과를 거둔 SFC
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였고, 행사장
에는 주요 자산운용사들의 홍보 부스가
마련돼 투자권유대행인이 최신 금융 트
렌드와 상품 정보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이어지면서 화합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박경희 삼성증권 WM부장은 “유치
자산 13조원 돌파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SFC 분들의 전문성과 삼성증권의 체계
적인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낸 합작품”이
라며 “앞으로도 투자권유대행인들이 영
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업계 높은 수
준의 인프라와 교육, 파격적인 보상 체
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인터뷰

정의현

미래에셋증권 ETF운용본부장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상장지수펀드(ETF)로
의 자금 유입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
부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ETF
투자 수요는 구조적인 흐름이라며 변동
성이 커질수록 실적이 확실한 우량주 중
심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개인 투자자들의 ETF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
르면 국내 ETF 순자산총액은 381조
3296억원(지난 19일 기준)으로, 지난해
말 297조원 대비 84조원 넘게 증가했다.
2020년 52조원 수준이던 시장이 5년여
만에 7배 이상 성장한 셈이다.

“韓 증시, 여전히 저평가된 국면
하락 과도 ETF 매수 등으로 대응
엔비디아 차세대 AI 가속기 출시
韓 메모리 기업 경쟁력 더욱 부각”

◆ 변동성 장세 대응 전략은 “우량주 중
심 투자”

정 본부장은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된 국면에
있다”며 “기업 실적이 성장하고 있음에
도 주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
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적이 짝하
는 곳에 자금이 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지금은 숫자가 확인되는
산업과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해야 할 시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이
메트로경제와 인터뷰 중인 모습.
/미래에셋자산운용

점”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산
업의 경쟁력이 부각되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미국이 동맹국 중심으
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선택지
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
할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도체뿐
아니라 조선 등 일부 산업에서 실적 전
망이 상향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실적 개선이 결국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코스피 변동성
이 확대됐지만 ETF 투자 흐름은 이어지
고 있다. 정 본부장은 “투자자에게 적합한
12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ETF 투자는
계속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투자자들은
하락폭이 과도한 ETF를 매수하거나 지
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방산·우주 관련 E
TF 등에 투자하며 시장에 대응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변동성이 커진 시장 환경에서는 우량
주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익이 확실한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정되면 결국 실적이 뒷받침
되는 기업들이 먼저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최근
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에서도 국내 증
시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AI 산업 확산은 반도체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다. 정 본부장은 “AI 서비스 확산은 메모
리 반도체를 AI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만들고 있다”며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
이 맞물리며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구조
적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출시도
메모리 수요 확대 요인으로 꼽았다. 그
는 “엔비디아가 2026년 하반기 차세대 A
I 가속기를 출시할 예정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핵심 메모리 공급사로 선
정됐다”며 “AI 가속기 세대가 진화할수
록 메모리 장착량도 크게 증가하는 만큼
한국 메모리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부각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는 전력기기 산
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
다. 정 본부장은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전력 수요 증가로 전력기기 수요가 빠르
게 늘고 있다”며 “리드타임이 짧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도 증
가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 ETF 시장 확대...레버리지 변동성·
연금 자금 변수

정 본부장은 국내 ETF 투자자들이 유
의해야 할 리스크로 레버리지 상품의 변
동성을 꼽았다. 그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구조적으로 증가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시장 변동성이 큰 국면
에서는 증가 부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
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배
경으로는 신규 투자자 유입을 꼽았다.
정 본부장은 “주식 투자를 처음 접하는

투자자에게 개별 종목 투자는 진입 장벽
이 높을 수 있다”며 “ETF는 분산투자를
통해 개별 종목 리스크를 줄이면서 시장
방향성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ETF 시장 확대가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그
는 “투자자가 ETF를 매수하면 ETF가
결국 기초 주식을 매수하는 구조”라며
“ETF가 없었다면 개별 주식을 직접 매
수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체 시장 수
급 구조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
니다”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투자 확대, 장기투자 확산
분배금 지속 성장 구조 ETF 선택
기업, 배당 등 주주가치 높여야”

ETF 시장 확대와 함께 연금 자금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정 본부장은
“퇴직연금 투자 확대는 장기 투자 문화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저비용 장기투자 상품과 저변동성 상품
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금 투자자에게는 분배율만 보고 투
자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그는 “월 분배율이 높은 상
품만 보고 투자할 경우 원금이 훼손될 가
능성도 있다”며 “분배금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구조의 ETF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국 지수 ETF가 연금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주환원 정
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기업들이 배당 확대나 자
사주 매입 등 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
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전력생산부터 소비까지 AI... 한전, 에너지 플랫폼기업 도약

AI혁신단 신설하고 AI 적용 가속
고객서비스·안전·ESG경영 혁신
“에너지·AI 융합, 미래 성장 동력”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전력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선언하며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의 체질 전환에 나섰다.

한전은 지난 23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AI 경영혁신 선포식’을 열고, ‘세계 최고의 에너지 AI 플랫폼 사업자(The Best Energy AI Platform Provider)’로 도약하겠다는 비전과 중장기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정부·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김 사장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등장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AI 기반 전력산업 전환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이 AI 경영혁신을 선포하고 있다. /한전

한전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복합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경영 혁신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전력 생산·송배전·소비 전과정에 AI를 적용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 고객 서비스와 안전·ESG 경영까지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제시된 로드맵은 ▲데이터 ▲

솔루션 ▲인프라 ▲거버넌스·협력 ▲역량·문화 등 5대 축으로 구성됐다.

전력데이터에 의미와 맥락을 부여하는 데이터 온톨로지 구축을 통해 AI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기존 나주와 대전 데이터센터 두 곳을 AI데이터센터로 전면 전환하고 고성능 GPU자원을 확충해 AI솔루션을 구동할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아울러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내 AI 연구조직과 외부 기관 간 협업을 확대한다. 특히 에너지 특화 AI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등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이 같은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최근 신설된 ‘AI혁신단’을 중심으로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실행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전력망 적기 건설, 국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선언은 정부의 AI 산업 육성 기조와도 맞물린다. 한전은 ‘AI-에너지 고속도로’ 정책과 연계해 전력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의 AI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도입을 넘어, 본원 사업인 전력망 효율을 극대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혁신”이라며 “에너지와 AI의 융합을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 축으로 삼아 전방위적 경영혁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향후 글로벌 전력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혁신을 선도하는 에너지 AI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 혁신을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폴리텍대, 사천에 ‘전투기 테마캠퍼스’ 개장

체험형 과학기술 플랫폼으로 확장
공군 F-4·F-5 전투기 등 3대 확보

한국폴리텍대학이 경남 사천에 전투기 실물을 전시한 ‘우주항공 테마 캠퍼스’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개방에 나섰다.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체험형 과학기술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폴리텍대학은 24일 오후 사천 항공캠퍼스 광장에서 ‘우주항공 안보 역사 테마 캠퍼스’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동식 사천시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우주항공 테마 캠퍼스 조성으로 전시되는 실물 항공기가 확대됐다. 기존 야외 전시 기체 3대에 더해 F-4 팬텀, F-5 프리덤 파이터와 해군의 UH-1H 헬기 등 3대를 새롭게 확보해 총 6대의 항공기가 캠퍼스 전면 광장에 배치됐다.

이번 인프라 개편은 항공기 이전을 추진한 대학의 노력과 사천시의 공간 조성을 위한 투자와 지원이 시너지를 낸 결과물이다.

항공기 이전과 함께 전시장 표지석 설치, 바닥 리모델링, 야간 조명 및 포토존 조성 등이 이뤄지면서 캠퍼스는



사천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우주항공 안보역사 테마 캠퍼스 전경 /폴리텍대학

사천시의 새로운 우주항공 랜드마크로 탈바꿈했다.

폴리텍대학은 이번 제막식을 계기로 체험형 과학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일반 국민에 확대 운영한다. 대국민 직업체험 공간인 ‘꿈드림 공작소’를 상시 개방하고 ‘열린 도서관’을 조성해 캠퍼스를 관광과 기술 교육이 융합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철수 이사장은 “이번 캠퍼스 공간 조성은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뜻깊은 행보”라며 “폴리텍대학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사천의 위상에 맞춰 교육 콘텐츠를 고도화하고, 누구나 첨단 기술을 체험하는 열린 직업교육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원영휘 항공캠퍼스 학장도 “대한민국 영공을 지켜온 항공기들이 이제는 실습장을 넘어, 지역민의 항공 지식 보급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소중한 교육 자산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전KDN, 신입사원 204명 채용

내달 7일까지 접수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은 오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2026년도 신입사원 선발’ 지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전KDN은 올해 정부의 공공기관 청년 일자리 확대 기조에 맞춰 채용 규모를 늘리고 사무와 기술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 신규 인력 충원을 추진한다.

채용 규모는 정규직 신규 204명으로, 전산 일반 71명, 연구 5명, 통신 일반 85명, 전기 5명, 정보보호 12명, 안전 관리 1명, 환경·에너지 1명, 사무 22명,

건축설비 1명, 변호사 1명 등이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되며 직무별 전공 능력과 직무 적합성, 한전KDN 인재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원서는 한전KDN 채용 누리집(recruit.kdn.com)을 통해 접수 가능하고, 모집 분야별 세부 자격요건과 일정은 채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 ‘잡알리오(JOB-ALIO)’에서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전 직무별 모집 인원과 전형 일정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부, ‘태안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

군 작전성협의 조건

정부가 1.4GW(기가와트) 규모의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군 작전성협의’를 조건으로 지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충남 태안군 서쪽 인근 해역(태안해상·서해해상·가외해상)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달 16일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7곳 지정한 데 이어 추가 지정에 나선 것. 태안의 경우 일부 해역에 군 작전성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기관과 협의 및 보완 조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정받았다.

기후부는 다른 7곳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와 함께 군 협의 등 조건부 지정 사항의 연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태안군은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군내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폐지에 대응하는 청정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발생하는 전력공급 공백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통합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 에너지 안보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항저우 K-푸드페어, 949만달러 계약 성과

B2B 상담회·알리바바 팸투어 진행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지난주 중국 항저우에서 K-푸드 수출영토 확장을 위한 ‘2026 항저우 K-푸드페어(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24일 aT에 따르면 이커머스 기업 알리바바그룹 본사가 위치한 항저우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는 19~20일 기간 B2B 수출상담회와 알리바바그룹 팸투어가 진행됐다. 21일부터 22일까지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B2C 소비자 체험행사도 이어졌다.

B2B 수출상담회에는 국내 우수 K-푸드 기업 40개사와 중국 전역의 60개 바이어가 참여해 총 553건의 1:1 매칭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이너뷰티 식품, 간편식, 디저트류 등 ‘넥스트 K-푸드(유망품목)’를 중심으로 2750만 달러 규모의 상담실적과 총 19건·949만 달러 규모의 현장계약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상담장에는 수출상담뿐 아니라 범부



지난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K-푸드페어 /aT

처 ‘대외협력 상담관’을 설치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인천항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지재권·상표권 상담부터 상품검역, 통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 자문 서비스를 지원했다.

aT는 또 박람회에 참가한 수출업체들과 함께 항저우에 위치한 알리바바그룹 본사를 방문해, 온라인시장 확대를 위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알리바바의 플랫폼을 활용한 K-푸드의 효과적 홍보 및 중국의 대표 쇼핑 플랫폼인 티몰 내 입점된 온라인 한국식품관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세종=김연세 기자

“의료·건강·요양·주거 한 번에” 퇴원환자까지 촘촘한 연계 지원

서울시, ‘서울형 통합돌봄’

어르신·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퇴원 전 의뢰로 재택 돌봄 공백 최소
25개 자치구 중심 대응체계 구축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안착 본격화

서울시가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건의료, 건강,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등 5개 분야 58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통합돌봄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예비대상자로 관리하며 6개월마다 모니터링해 필요시 돌봄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담당 공무원 등이 방문해 사전조사와 종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초에는 자치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동행센터에 돌봄매니저와 복지플래너를 배치했다.

자치구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통합지원회의 운영, 서비스 연계 등 지역 단위 통합돌봄을 맡는다. 동 주민센터는 상담과 신청 창구를 운영하며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 사전조사, 정기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통합돌봄



서울형 통합 돌봄. /뉴시스

종합상황실과 콜센터를 운영한다. 시행 초기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치구,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한시적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치구 간 돌봄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주거 분야의 돌봄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5개 권역별 위치 기반 자원 현황도 함께 마련한다.

방문진료 지원체계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25일 전국 최초로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올해 일차의료 방문진료기관 2500개소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 700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현재 62개소에서 장기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같은 날 삼급종합병원 13곳과 시립병원 7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병원과 25개 자치구 간 공식 연계 체계도 구축한다. 병원이 퇴원 전 환자의 의료·돌봄 필요도를 판단해 자치구에 의뢰하면, 자치구는 사전조사와 맞춤형 지원계획을 세워 퇴원 전부터 지원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퇴원환자와 통합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장수센터도 개편한다. 기존 17개소인 건강장수센터는 올해 33개소

로 확대된다. 보건소 다학제팀이 참여해 맞춤형 케어플랜을 세우고 재택 방문 건강관리도 지원한다.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해서는 건강상태와 욕구를 반영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계하고,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주·야간보호기관의 단기보호 서비스와 장기요양가족휴가제도도 지원한다. 장기요양 가구에는 가족 상담과 교육도 제공한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퇴원환자, 장기요양 등급 외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기각자 등에 대해서는 간병과 가사서비스에 한해 돌봄SOS서비스 이용 한도액을 늘릴 예정이다. 퇴원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986명에게는 단기 돌봄서비스도 새로 제공한다.

주거 지원도 포함된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문턱 제거와 안전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하고, 주거취약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불편 처리와 흡케어, 클린케어 등 주택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통합돌봄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문이과 통합해도 합격선 격차 더 벌어진다

자연계 강세 이과 선호학과 상승 전망
문과 비인기 학과 하락폭 커질 가능성

2028학년도 고교 문이과 완전 통합이 시행되지만 입시 결과까지 평준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상위권 자연계 선호가 이어지면서 이과 학과 합격선은 더 높아지고, 문과 비선호 학과는 예상보다 큰 폭의 하락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종로학원은 2028학년도부터 수능이 문이과 완전 통합형으로 바뀌더라도 실제 대입에서는 학과별 합격선 격차가 지금보다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24일 분석했다.

현 고2와 고1부터 적용되는 2028 대입 개편안은 국어와 수학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단일화된 시험으로 치러지며, 탐구 역시 문과와 이과 구분 없이 공통 응시 체제로 전환된다.

실제 최근 수시 합격선 흐름은 자연계가 강세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고, 정시에서도 계열 간 점수 격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2028학년도부터 수능이 문이과 통합형으로 바뀌면 자연계 학과 지원 집단의 수험 점수가 인문계 지원 집단보다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탐구 역시 사탐과 과탐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는 만큼 과탐 성적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 전체 탐구 점수에서도 우위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합수능 아래에서도 상위권 학생들의 지원 흐름은 자연계부터 먼저 형성되고, 이후 인문계 학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입시업계에서는 문이과 통합이 곧 계열 간 경쟁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현진 기자

하남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 환영

교산신도시 구간 조기 추진 촉구

이현재 시장이 이끄는 하남시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산신도시 구간의 조기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하남시는 지난 3월 13일 하남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건의를 진행한 데 이어, 3월 20일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감일신도시 등이 조성된 지역으로, 그동안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으로 주민들이 큰 교통 불편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8년 3기 신도시의 ‘서울 30분 출퇴근’ 실현을 목표로 수립된 교산신도시 핵심 광역교통대책이다. 그러나 2023년 6월 이후 약 3년간 사업이 중단되면서 ‘선 교통, 후 입주’라는 정부 정책 기조 달성이 어려



하남시청 전경. /이현진 기자

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교산신도시는 2029년 첫 입주를 시작해 2032년 대부분 입주가 완료될 예정이지만, 현재 계획대로라면 고속도로 착공 시점이 2029년 말로 잡혀 있어 교통 인프라 구축이 지나치게 늦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가운데 서울특별시~교산신도시(상상차IC)~상산곡기업이전단지(상산곡IC)~중부고속도로(북광주JCT) 구간이 2032년까지 우선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하남=(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334억 투입

학교 안팎 있는 서울형 지원체계 가동
보충수업·튜터 등 연계 책임지도 강화

서울시교육청이 334억원을 투입해 2026학년도 기초학력 보장 사업에 나선다. 정규수업 협력수업과 방과후 보충, 학습지원 튜터, 심층진단 연계를 묶어 학교 안팎의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실·학교·학교 밖을 연계한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해 2026학년도 서울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초·중·고 총 1328교가 학교 여건과 학습지원대상 학생 현황 등을 반영해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 모든 학교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3월 진단활동 집중주간’을 운영해 다층적·통합적 진단 활동을 실시한다. 이후 진단 결과와 기초학력 미달 원인을 고려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생별 지원 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책임지도 예산 약 147억원을 투입해 학교별 학습지원대상학생 수와 학교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을 했다. 각 학교는 ▲정규수업 시간 중 협력강사를 활용한 협력수업 ▲방과후 교과 보충 프로그램 ▲담임·교과 교사와 함께하는 기다리샘 등 학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약 74억원을 투입해 초·중학

교에는 학습지원 튜터 620명도 지원한다. 올해는 학습지원 튜터 1인당 지원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해 학기 중 멈춤 없는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특수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올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전면 운영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통해 원스톱 심층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기초학력은 학생의 기본권이며, 이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2026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통해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다중 학습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인천 개항장서 즐기는 로컬 문화축제

음악·마켓 등 결합한 복합행사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과 개항장 문화지구 일원에서 체험형 복합 문화 축제인 ‘1901 라이브로드’와 ‘2026 제물포웨이브 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의 로컬 브랜드와 역사·문화 콘텐츠를 한자리에 선보이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1901 라이브로드’는 1901년 제물포 구락부에서 시작된 서양음악 교류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도보형 음악 축제로, 28일에는 국가스텐, 서도밴드, 잭킹콩이, 29일에는 QWER, 크라잉넛, 극동아시아타이거즈가 무대에 오른다. 자유공원과 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

예집 등에서는 신진 아티스트와 재즈 아티스트의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며, 27일에는 지역 라이브 클럽 5개소와 연계한 ‘클럽데이’와 로컬 주류 팝업 행사도 열린다.

‘2026 제물포웨이브 마켓’에는 42개 인천 로컬 브랜드가 참여하며, 행사장 내 ‘인천 누들로드’ 특별 전시·체험존에서는 면(麵) 관련 전시, 체험, 이벤트, 판매가 결합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이 인천 고유의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인천관광공사 유지상 사장은 “개항장의 역사와 현대적 콘텐츠를 결합한 인천형 복합 문화관광 모델”이라며 “상상플랫폼을 중심으로 원도심 문화자산과 로컬 브랜드를 연계해 관광 콘텐츠를 확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 NOL 티켓 평점 9.9 공연 만족도 100%! | 대학로 NO.1 여성전용 섹시코미디 쇼뮤지컬

MUSI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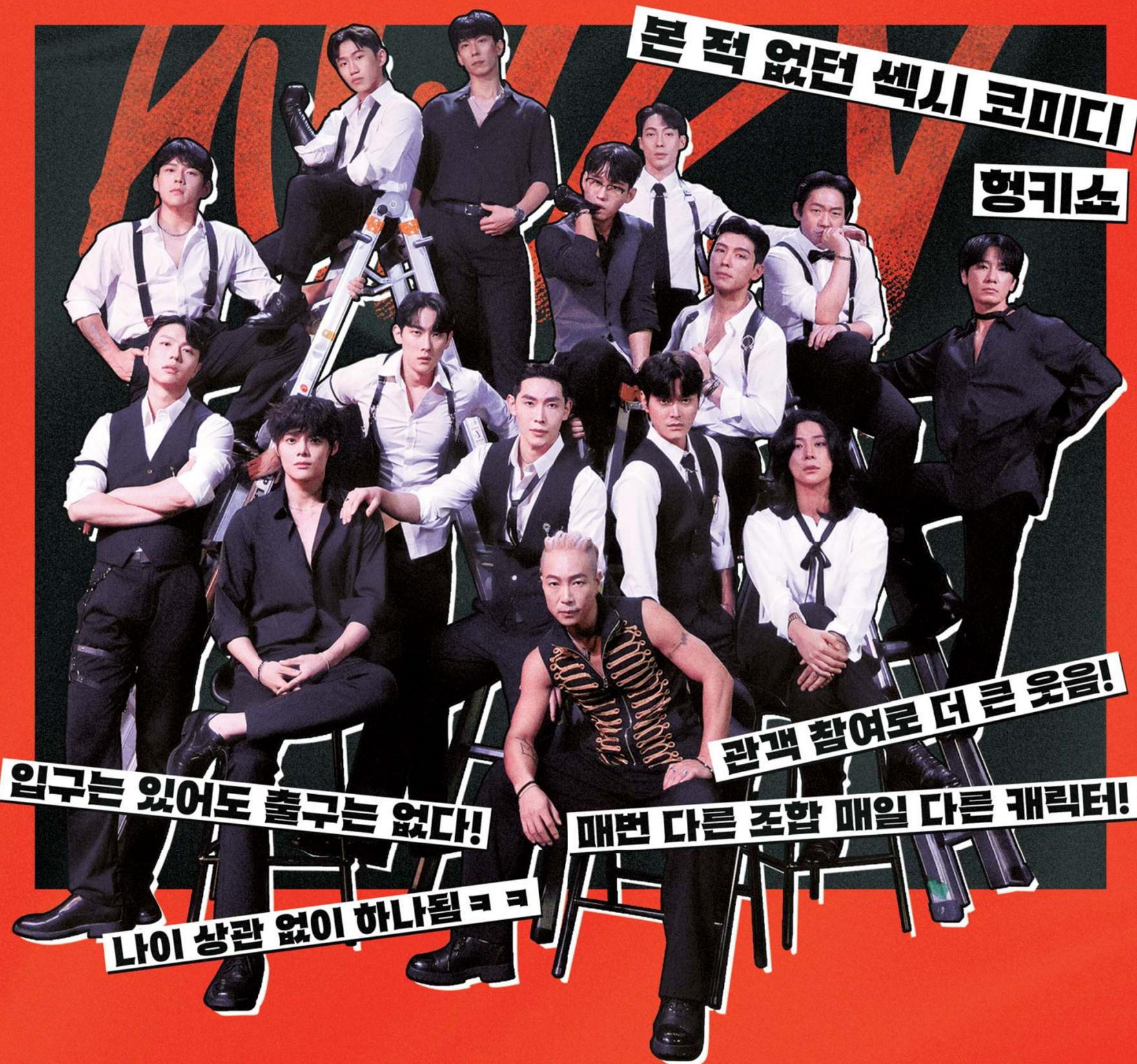
헝키쇼

2025.11.28 ~ OPEN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본 적 없던 섹시 코미디

헝키쇼



관객 참여로 더 큰 웃음!

입구는 있어도 출구는 없다!

매번 다른 조합 매일 다른 캐릭터!

나이 상관 없이 하나 될 ㅋㅋ

<헝키쇼 NOL TICKET 리얼 후기>

NOL티켓 바로가기

도파민 팡팡 스트레스 타파!!

soa***님 ★★★★★

스트레스 너무 만병이라 탈주해서 간 공연. 너무 재밌어서 눈을 날정도로 웃고 잘생기고 섹시한 남자 6명이 눈호강 귀호강 시켜주는 잊지 못할 공연이었어요!! 매 공연마다 캐릭터가 바뀌는 것도 재미!! 한번만 볼 수 없는 공연이에요!!

저도 모르게 공연을 보는 내내 활짝 웃고있더라고요

a10***님 ★★★★★

사실 요즘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공연을 보는 내내 활짝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헝키쇼 덕분에 공연을 보는 그 순간에는 모든 걱정을 잊고 행복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관객이 장면을 완성하는 참여형 쇼!

ins***님 ★★★★★

공연 끝나고 나올 땐 우울한 마음이 어디 갔는지 썩 사라져 있더라고요. 진짜 엄청 웃고 나왔습니다^^ 이 공연의 가장 큰 장점은 n회차 관람해도 n번째로 새롭다는 점. 배우분들이 매일 바뀌기도 하고, 같은 배우여도 표현이나 애드립이 달라서 여러 번 본 저도 매번 새롭게 즐기게 돼요.



카메라를 켜 위 큐알코드를 스캔해보세요!

면세점 고·고 쇼크... 기준환율 인상에도 '수익성 빨간불'

(고환율·고유가)

롯데·신세계·신라·현대, 환율 대응 기준환율 상향에도 수익성 우려 가격 방어 나섰지만 마진은 부담 보따리상 감소에 객단가 하락세 K-컬처 앞세워 외국인 수요 공략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촉발된 고환율·고유가 여파가 국내 면세업계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원가 부담과 수요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며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업계는 기준환율 인상과 K-컬처 마케팅을 병행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신라·현대 등 주요 면세점들은 국산 브랜드 제품에 적용하는 기준환율을 일제히 상향 조정한다.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24일부터 국산 브랜드 제품의 달러 판매 가격을 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환율을 기존 1400원에서 1450원으로 50원 올린다. 신라면세점, 현대면세점도 25일부터 기준환율을 동일한 폭으로 조정한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달러 기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며 백화점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 출국장의 모습.

/인천공항공사

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면세점은 상품을 직접 매입해 달러로 판매하는 구조인 만큼, 기준환율을 올리면 달러 표시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1만4000원짜리 제품은 기준환율 1400원 적용 시 10달러지만, 1450원으로 상향하면 약 9.66달러로 내려간다. 사실상 할인 효과를 통해 고객

이탈을 방어하려는 전략이다.

하지만, 판매량이 늘지 않을 경우 마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업계는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준환율 조정을 미뤘지만, 최근 환율이 장중 1510원선을 넘어서자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다. 면세업은 달러로 상품을 직매입하는 특성상

환율이 오르면 매입 원가가 상승하고, 외상 거래에 따른 환차손 리스크도 커진다. 매출이 발생해도 이익이 줄어드는 '손익 괴리'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다.

실제로 주요 면세점들은 매출과 수익성이 엇갈리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연간 3조원이 넘는 매출에도 수백억 원대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신세계면세점 역시 2조원대 매출에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환율이 일정 비율 상승할 때마다 수십억 원 단위의 손익 감소가 발생하는 구조다.

수요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졌다. 과거 매출을 견인하던 중국 보따리상(따이공)이 줄어든 대신 개별 관광객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객단가가 하락했다. 대량 구매 대신 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 등에서 체험형 소량 소비를 하는 패턴이 확산된 영향이다. 여기에 국제 유가 상승으로 항공료 부담까지 커지며 여행 수요 위축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같은 악재 속에서도 업계는 'K-컬처'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방탄소년단(BTS) 공연 특수다.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을 전후해 면세점 매출이 급증하며 외국인 수요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다.

실제 공연 기간 동안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의 외국인 매출은 전년 대비 약 89% 증가했고, 신세계면세점도 K-팝 특화 매장 매출이 크게 늘었다. 특히 BTS 굿즈를 중심으로 유입된 고객이 식품·패션 등 다른 카테고리 소비를 확장하는 '연쇄 소비' 현상도 나타났다.

업계는 이를 단순 이벤트 효과를 넘어 구조 변화의 신호로 보고 있다. 기존 '저가 쇼핑 채널'에서 '콘텐츠 기반 체험형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주요 면세점들은 K-팝 IP, 미디어아트, 체험형 매장 등 차별화 콘텐츠를 강화하며 체류 시간 확대와 고객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환율로 가격 경쟁력은 약화됐지만, K-컬처를 기반으로 한 체험 요소는 여전히 강력한 유인책"이라며 "환율 리스크에 대응하는 동시에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흡수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환율이라는 외부 변수와 소비 구조 변화를 고려해 가격과 콘텐츠 전략을 동시에 가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롯데리아, 메가 매장 육성으로 수익성 강화

서울 상권 리뉴얼 성과 바탕 부산·김해 등 지방 투자 확대 매출 늘고 운영 효율도 높아

롯데GRS의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가 24년 매장 수익성 강화를 위한 '리노베이션(Re-Innovation)' 전략을 지난해 지방으로 확대해 지역별 메가 브랜드 매장 육성의 효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서울시 주요 상권 내 7개점 및 강원 1개점 등 직영점 리뉴얼 투자를 통해 각 매장별 매출 증진의 성과를 도출했으며, 서울시 내 서부·중부·남부 주요 매장의 상승 효과를 바탕으로 수익성 매장 육성 투자를 통해 매장 매출 증진과 수익성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진행했다.

이러한 서울 내 주요 상권 매장의 리뉴얼을 통해 고객 매장 방문 유도 확대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객 이용 편의 강



롯데리아 리노베이션 매장(내부 및 푸드테크) /롯데GRS

화·브랜드 변화 체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해 25년 상·하반기 지방 주요 직영 매장으로 리뉴얼을 확대했다.

25년 리노베이션 첫 대상 매장으로 계획한 ▲김해장유점 ▲부산역점 ▲진해용원점 이 지난해 4월, 6월, 11월 재오픈 하였으며, 해당 매장은 객수 및 매출 증진의 효과로 나타났으며 재 오픈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각각 누적 매출액 약 12%, 약 21%, 약 23% 증가하며 25년 영업을 마감하며 수익성 확대의 성과를 창출했다.

이와 함께 강남역 상권에 지난해 6월 오픈한 강남역SELECT점은 강남 오피스 상권 내 매장 주문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 메뉴와 매장 면적을 축소된 콤팩트형 매장 역시 지난해 목표 매출액 100%를 달성하며 상권 유형별 출점 전략의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롯데리아는 지난해 11월부터 비수기 시즌 특수성에 맞춰 서울 도심 주요 역세권 매장 4개 매장을 리뉴얼해 고객 이용 편의 확대와 환경 개선으로 매장 고객 경험 확대를 통해 브랜드 강화를 위한 투자를 통한 수익형 매장 육성에 투자를 지속 이어갈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KT&G '에세', 해외 매출 1조 돌파

국내 단일 담배 브랜드 첫 기록

KT&G의 초슬림 담배 브랜드 '에세(ESSE)'가 지난해 해외시장에서 연간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 또한, 출시 이후 국내의 누적 판매량도 1조 개비를 넘어섰다.

'에세'는 지난해 해외 시장에서만 매출 1조 1088억 원을 기록하며, 우리나라 단일 담배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글로벌 매출 '1조 클럽'에 입성했다. 에세의 글로벌 판매 호조 속에 지난해 KT&G의 해외 관련 매출액은 전년 대비 29.4% 증가한 1조 8775억 원을 기록하며, 글로벌 관련 매출 비중이 국내를 넘어서는 원년이 되었다.

1996년 출시돼 올해로 30주년을 맞이

/신원선 기자

한 에세는 지난해까지 국내시장 누적 5388억 개비, 해외시장에서 4676억 개비가 팔려 국내의 총 누적 판매량에서도 1조 개비를 넘어섰다. 지난해 연간 판매량은 국내 약 208억 개비, 해외 약 326억 개비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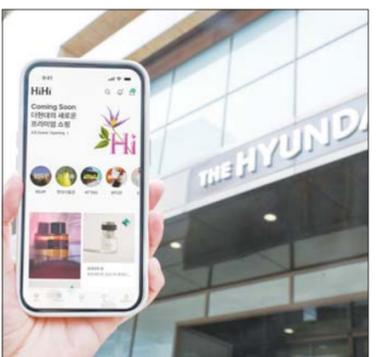
2001년 해외시장에 처음으로 수출된 에세는 기존 담배 사이즈와 구별되는 슬립한 디자인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았으며, KT&G는 에세의 탄탄한 품질력과 현지 입맛을 겨냥한 차별화 전략을 기반으로 진출 국가수를 늘려왔다. 에세는 현재 9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전 세계 초슬림 담배 1위 브랜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프리미엄 온라인 플랫폼 '더현대 하이' 출격

현대백 더현대닷컴·투홈 통합 오픈

현대백화점이 프리미엄 큐레이션을 앞세운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더현대 하이(Hi)'를 선보이며 e커머스 시장 공략에 나선다. 기존 '더현대닷컴'과 '현대식품관 투홈'을 통합한 서비스로 다음달 6일 정식 오픈하며 25일부터 12일간 오픈 베타를 통해 사용자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더현대 하이는 방대한 상품과 가격 비교 중심의 기존 e커머스 구조에서 벗어나 '발견'과 '선택'에 초점을 맞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메인 화면 최상단에 할인 행사나 광고 대신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콘텐츠를 배치하고, 계절·공간·취향을 반영한 상품을 패키지 형태로 제안한다. 고



현대백화점_더현대 하이.

/현대백화점그룹

객이 직접 검색하고 비교하기보다, 백화점이 제안하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취향을 탐색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지주 "수익성 중심 경영 약속"

제59기 주총서 6개 안건 원안 가결

롯데지주가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31층에서 제 5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개정 ▲이사 선임 ▲신규 감사위원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6개 안건이 상정됐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신동빈 롯데 회장, 고정욱 롯데지주 대표이사, 노준형 롯데지주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이경준 이사와 김해경 이사가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또한 신규 사외이사로 조병규 이사가 선임됐다.

집중투표제 및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일부 정관이 개정됐으며, 자기주식 처분 및 보유 기준에 대한 조항 신설 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의장을 맡은 고정욱 롯데지주 대표이

사는 인사말을 통해 향후 기업가치 제고 및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 방향을 설명했다.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본원적 경쟁력 강화, 사업 및 자산 재편, 성장 동력 투자, 글로벌 사업 확장을 제시했다.

고 대표는 "기업가치를 높이고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수익성 중심의 경영 방침을 지켜나가겠다"며, "올해는 실질적인 턴어라운드 성과를 바탕으로 주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셀트리온, 1.2조 투자·신약 승부수... '글로벌 톱3' 도전

**인천 송도캠에 4·5공장 신설
4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 추진
ADC 등 신약 파이프라인 구축**



셀트리온 제35기 주주총회에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셀트리온이 기존 바이오시밀러 성공에 압도적 생산 능력과 혁신 신약개발을 결합해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펼쳤다.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증설을 통해 국내외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을 정조준하고, 국산 블록버스터 약물 후보 '집펜트라'의 미국 시장 안착, 첨단 바이오의약품인 비만 치료제 연구 등에 박차를 가한다. 오는 2030년 세계 3위권 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24일 셀트리온은 주총에서 국내외 생산 기지를 거점으로 한 '글로벌 투 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인천 송도 캠퍼스에 1조2265억원을 투자해 총 18만 리터 규모로 4공장과 5공장을 신설한다.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기술, 로봇 등도 적극 도입된다. 생산 규모와 효율을 높여 원가 절감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 향후 글

로벌 시장에서 입찰 경쟁력을 갖추므로써 미국 외 지역 매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브랜치버그 공장 역시 당초 계획 6만6000리터에서 7만5000리터를 키워 총 14만1000리터까지 확대한다. 미국 현지에서 셀트리온 제품을 자체 생산하고 급변하는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변수에 따른 위탁생산(CMO) 수요를 충족한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증설이 완료되면 셀트리온의 총 생산 역량은 기존 31만6000리터 대비 81% 커져 현재 57만1000리터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론자와 함께 세계 3대 생산 기지로 올라서는 것"이라며 "생산 역량은 물론 원료의약품 100%, 완제의약품 90% 수준의 생산 내재화를 통해 수익

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년 3월부터 미국에서 신약으로 발매되고 있는 셀트리온의 핵심 병기 '집펜트라'에 대해서도 실적 반등을 예고했다.

서 회장은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리 업체(PBM)의 높은 리베이트 요구와 현지 병원의 시술료 수익 구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초기 시장 진입 속도가 예상보다 느렸던 건 사실"이라고 시인하며 현재는 모든 PBM과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덧붙였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4세대 비만 치료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셀트리온은 현재까지 11개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글로벌 품목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항체·약물 접합체(ADC), 다중항체 등 총 23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임상 1상에 진입한 신약 후보물질은 4개다.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은 2033년 33개, 2038년 41개 등으로 강화한다. 특히 신제품이 호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카마, 스토브롤로·오센벨트, 움리클로, 앵토즈마, 아이덴젤트 등 5종은 지난해 하반기에 발매됐음에

도 불구하고 출시 첫 해 연간 매출 3000억원을 돌파했다.

비만 치료제 타임라인도 공유됐다. 서 회장은 "기존 1~3세대 비만 치료제의 고질적 문제인 '근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인 4세대 신약 3종을 개발 중"이라며 "오는 5월 허가용 동물 임상을 시작해 올해 안에 결과를 확인하고 2027년에는 임상 1상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 회장은 "미국 정책, 관세 리스크, 전쟁 등 대외 변수에 대비해 한국과 미국 생산 거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투트랙'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며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을 때까지 실적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중장기 성장을 위한 인적 쇄신과 서 회장의 현장 경영에 대한 의지도 확인됐다. 셀트리온이 독자 구축한 직접판매 체제를 맡았던 김형기 셀트리온 공동 대표(부회장)는 퇴임하고 기우성 셀트리온 공동 대표(부회장)는 재선임됐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팬데믹 신속대응 '오가노이드 플랫폼' 구축

**바이오드-오가노이드사이언스
감염병 대비 공동 연구 체계 가동**

동물의약품 전문 연구개발(R&D) 기업 바이오드가 차세대 팬데믹 대응을 위한 연구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본격화한다.

바이오드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 R-G.B 연구소에서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함께 '차세대 팬데믹 신속 대응 오가노이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래의 신·변종 감염병 및 인류를 위협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 기반 감염 재현 및 치료제 검증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세 기관은 보유한 전문 연구 인프라를 연계하여 감염병 연구 자원과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공동 연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협력체계에 따르면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인체의 장기 기능을 정밀하게 모사한 '오가노이드' 기술을 활



바이오드 강민 대표(왼쪽 네번째)와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왼쪽 다섯번째)가 오가노이드사이언스 R-G.B 연구소에서 '차세대 팬데믹 신속 대응 오가노이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해 감염병의 인체 감염 과정을 재현하는 연구 플랫폼을 제공한다.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구축된 오가노이드 모델을 실제 고 위험균 바이러스와 접촉해 감염 재현 및 실증 연구를 수행하며, 플랫폼의 과학적 검증과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담당한다.

바이오드는 감염병 연구에 필요한 병원체 자원 확보와 동물 유래 데이터 연결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동물의약품 개발과 감염병 연구 경험을 기반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인수공통 감염병 연구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오가노이드 플랫폼과 연계해 연구 결과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바이오드 강민 대표는 "이번 협력은 인간 유래 오가노이드 기술과 동물의약품 연구 자원을 결합해 감염병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 플랫폼을 통해 팬데믹 대응 백신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HLB생명과학, 조직은행 허가 취득

인체조직 이식재 사업 확대

HLB생명과학이 조직은행 허가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뼈, 연골, 근막, 피부 등 인체 조직을 취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으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허가 취득은 지난달 의료기기 전문기업 '올소테크'와 인체 조직 이식

재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후속 성과이기도 하다. HLB생명과학은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영업망을 확대하는 등 해당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HLB생명과학이 유통하게 될 '프리티엄 인젝트 리플'은 인체유래 무세포 동종진피 주사제다. 특히 이 제품은 피부 유래 조직에서 세포와 지방 성분을 제거한 뒤,

콜라겐 등 조직 재생에 필요한 세포외기질 성분을 최대한 보존한 의료용 생체소재다. 인대, 건, 관절, 근육 등 손상된 조직 치료와 수술 보완 목적으로 쓰인다.

또 실온 보관이 가능한 의료 현장에서의 높은 편의성까지 갖췄다.

HLB생명과학은 향후 다양한 인체 조직 기반 제품으로 사업을 넓혀갈 계획이다. 우선 공급 대상은 전국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이며 판로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다.

/이청하 기자

한국콜마, '구다이글로벌'과 협력 지속

협업 성과 돌아보고 협력 방향 논의

한국콜마는 지난 23일 서울 서초에 위치한 종합기술원에서 구다이글로벌 및 계열사 브랜드 임직원들과 함께 '오버더 레인보우 오브 구다이'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5년간 국내외에서 양사가 협업해 이뤄낸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동 개발한 선케어 제품들의 누적 판매량이 1억 개를 돌파한 것은 K부티 중요 성과로 꼽힌다. 산술적으로 지난 5년간 약 1.6초에 1개씩 판매된 수

준이며 K선케어 제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하나의 카테고리 입지를 다졌다.

한국콜마와 구다이글로벌이 2021년 함께 개발한 '조선미녀 맑은쌀 선크림'은 미국 대표 온라인몰 '아마존'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서 선크림 카테고리 1위를 기록했다. 라운드랩의 '자자나무 수분 선크림'은 2025년 미국 주요 방송인 NBC가 선정한 '최고의 선크림'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최초로 화장품 제조개발생산(ODM) 시스템을 도입한 한국콜마와 K부티 전문 유통사 구다이글로벌은 협업 모델을 고도화해 글로벌 시장을 지속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LG생활건강 "2026년, 성장 전환의 해로"

제2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LG생활건강은 24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LG서울역빌딩에서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 제25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변경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자기주식 소각 승인 등 총 5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LG생활건강 2025년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6.7% 감소한 6조3555억원, 영업이익은 62.8% 감소한 1707억원, 당기순손실은 858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1주당 배당금은 보통주 1000원, 우선주 1050원으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상법 개정에 따라 주주권한 강화를 위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등 정관 변경을 승인했다.



24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LG서울역빌딩에서 LG생활건강 '제25기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다. /LG생활건강

이울러 사외이사 김재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고 이사 보수 한도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LG생활건강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됐다.

이선주 LG생활건강 사장은 "고성장 채널 및 지역을 중심으로 10대 브랜드를 집중 육성해 2026년을 성장 전환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김기문 “이번 임기 끝으로 중앙회장직 마무리할 것”

(중기중앙회장)

내년 2월까지 27대 회장직 임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논란에
“임기 관련 현행 제도 유지 바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이번 임기를 끝으로 회장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24일 오후 배포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관련 입장문’에서 “이번 임기를 끝으로 중앙회장직을 마무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은 중동 전쟁 등 여러 힘든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선 “그동안 일부 회원 및 협동조합 이사장들의 의사를 존중해 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않았으나 법 개정안 논의가 저의 연임 여부와 결부되면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중기중앙회장 임기와 관련해 현행 제도가 유지되기를 바

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법 개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드린다”면서 “차기 중앙회

장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돼 중소기업계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23~24대 중기중앙회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2019년부터 다시 4년 임기의 26대 회장을 거쳐 내년 2월까지 27대 회장직 임기를 예정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때문에 일부에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총 4회에 걸쳐 16년 동안 회장을 하고 있는 김 회장이 차기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한국도요타, 국립암센터에 8000만원 기부

한국도요타자동차는 소아·청소년 및 취약계층 암 환자 치료 지원을 위해 지난 23일 국립암센터에 기부금 8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왼쪽부터)박아경 국립암센터 의료사회복지팀장, 김형준 한국도요타자동차 이사,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 이병진 한국도요타자동차 부사장 등이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요타자동차



르노코리아-부산시, 전동화 설비 구축

르노코리아는 23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와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의 전기동력자동차 생산 시설 구축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사장(왼쪽)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기아-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향상

기아가 서울시와 손을 잡고 ‘더 기아 PV5 W AV(이하 PV5 WAV)’을 활용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 향상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아



오뚜기함태호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재단법인 오뚜기함태호재단이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오뚜기센터에서 ‘제30회 오뚜기함태호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오뚜기함태호재단 함영준 이사장(둘째줄 가운데)이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으며, 60명의 장학생들은 오뚜기함태호재단으로부터 2년간 학비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오뚜기



한기대 ‘OASIS AMP 5기’ 입교식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24일 오후 서울 더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 과정(OASIS AMP) 5기’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 및 건설 전문 기업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공공기관 등 총 40개 기관의 최고경영자와 안전 분야 고위 관리자들이 1년간 총 24주 참여한다. /한기대

“W.A.V.E’ 전략으로 100년 기업 도약”

(인재·혁신·가치·친환경)

HMM 창립 50주년 기념식

새로운 비전 ‘해운을 넘어’ 선포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창립 50주년(3월 25일)을 맞아 세계 최고의 종합 해운·물류 기업으로의 도약을 공언했다.

HMM은 창립 50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비전과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HMM의 새로운 비전으로 해운을 넘어 더 큰 가치와 더 나은 미래를 움직인다는 뜻의 ‘Move Beyond Maritime’ (해운을 넘어)이 선포됐다. 또 인재(W), 혁신(A), 가치(V), 친환경(E)이라는 4가지 축의 ‘W.A.V.E’라는 구체적인 전략 방향도 제시됐다.

속련된 인재와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으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가치 중심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친환경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뜻이라고 HMM은 설명했다.

최원혁 HMM 대표는 “50년의 역사를 동력으로 100년 영속기업을 향해 또 다른 항해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으로 글로벌 타이어 선사를 향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HMM은 1976년 유조선 3척으로 시작한 HMM은 1994년 국내 최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취항했고, 1997년에는 변동성이 심한 해운업계에서 10



24일 HMM 여의도 본사에서 개최된 ‘HMM 50주년 기념식’에서 최원혁 대표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2010년대 글로벌 해운업계의 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뒤에도 2020년 당시 세계 최대 크기인 2만4천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HMM 알헤시라스’ 호를 비롯해 20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도입하며 재도약했다.

HMM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선사 최초로 메탄올, LNG 등 친환경 연료 컨테이너선을 확보하고 선박종합상황실을 개설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친환경 경쟁력과 디지털 전환(DX)에 앞장서고 있다.

HMM은 이날 선포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중심으로 미래를 향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기보, 중소·중견기업 금융·성장 지원

한국산업은행·기업은행과 ‘맞손’
기후테크 기업 발굴, 지역 균형성장

기술보증기금이 한국산업은행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기업은행과는 균형 성장을위해 지역 창업 활성화를 돕는다.

24일 기보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K-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녹색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중소·중견 기후테크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유망 기후테크 기업 발굴 ▲기후대응보증·녹색기술산업보증 등의 우대보증 제공을 통해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산은은 ▲녹색특별상품을 통한 금리 우대 ▲투자 플랫폼 연계 등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은 양기관 간 기후테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탄

소중립 전환을 지원해 녹색금융 확산과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보 이재필 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K-기후테크 기업을 녹색 유니콘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기보는 또 중소기업은행과 과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 고도화를 촉진해 산업 간 양극화 완화와 지역 균형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기업은행의 특별 출연금 145억원을 재원으로 29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해당 기업은 최대 3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0.3%p↓, 3년간) 등의 우대 혜택도 함께 제공받는다. /김승호 기자

무신사, 패션·리테일 분야 장애인고용 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맞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무신사리테일 서비스는 24일 서울 성동구 무신사본사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및 ESG경영 실천을 위한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장애인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적합 직무를 분석해 고용모델을 제시하고, 모집 대행과 직업훈련 등 다양한 고

용서비스를 제공해 무신사리테일서비스의 ESG경영 실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패션/리테일 분야에 장애인 고용 모범사례를 만들것”이라며 “장애인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성 무신사리테일서비스 대표이사는 “패션 및 리테일 현장에 적합한 장애인 직무를 개발하고,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 직업체험관을 설치하는 등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인사

◆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국제협력관 장현석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하헌재

부음

▲ 김재현씨 별세, 김규식(프로축구 강원FC 부대표)씨 부친상 = 23일, 강릉 아나병원 장례식장 특 1호, 발인 25일 오전 10시.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29 | 해질 / 18:48

3월

25일 (수)
음력: 2월 7일

수도권 날씨

8 ~ 1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Where Real NONSAN STRAWBERRIES S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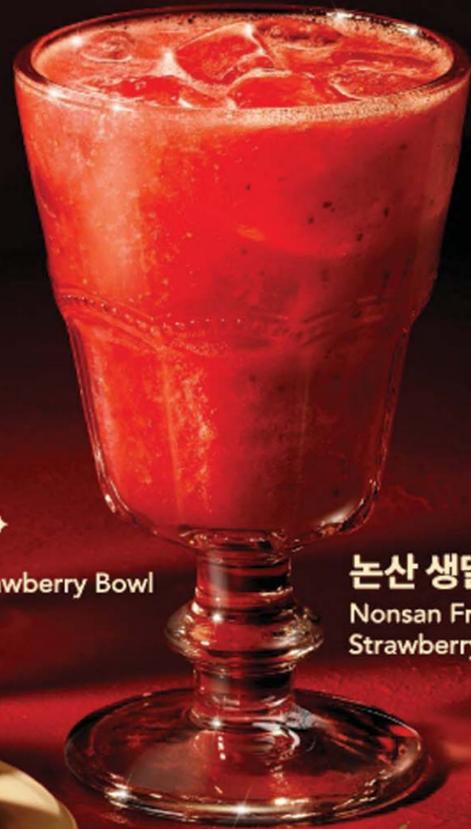
논산 생딸기
바나나라떼[★]

Nonsan Fresh Strawberry
Banana Latte



논산 생딸기볼[★]

Nonsan Fresh Strawberry Bowl



논산 생딸기주스[★]

Nonsan Fresh
Strawberry Juice



생딸기 바나나
푸딩케이크[★]

Fresh Strawberry
Banana Pudding Cake



데미안 허스트, 왜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인가



홍경안 역
시시일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지난해 론 뮤익(Ron Mueck)의 극사실주의 조각 회고전으로 53만 관객을 동원하며 서울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신체의 물질성을 극한까지 밀어붙인 시각적 압도감은 대중의 경탄을 자아냈지만, 1990년대 후반 조각의 문법을 갱신한 작가의 회고전을 2025년 한국의 국립기관에서 개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질문도 남겼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채 내려지기도 전에 또 하나의 블록버스터급 전시가 마련됐다. 바로 지난 3월 20일(~6월 2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막한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개인전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이다.

허스트는 1980년대 말 골드스미스 대학 출신들을 주축으로 결성되어, 파격적인 소재와 충격 요법,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과의 긴밀한 공생을 통해 침체되었던 영국 미술을 세계 현대미술의 중심으로 격상시킨 예술가 그룹인 'YBA'(Young British Artists)

ts)의 중심인물이다. 지금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인 작가다.

그런 그가 한국 유일의 국립미술관에 초대된 건 올해를 시발점으로 하는 '국제 거장 전 정례화'에 의해서다. 영국의 '테이트 모던'이나 미국의 'MoMA'에서나 볼 법한 전시를 국내 관람객에게 소개한다는 취지다.

전시장에는 허스트의 예술 세계를 지탱해 온 핵심 작품 50여점이 빼곡히 들어섰다. 대표작 <살아 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1991)을 필두로 <신의 사랑을 위하여>(2007), <죄인>(1988), <천년>(1990) 등이다. 2017년 베니스에서 선보인 '믿을 수 없는 난파선의 보물' 전만큼은 아니지만 규모와 강렬함 측면에선 꽤나 묵직한 편이다. 무엇보다 삶, 죽음, 종교, 과학, 믿음, 욕망 등을 주제로 한 허스트 예술 40여년의 궤적을 일거에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

그러나 이 전시에 대한 미술계 전문가들의 비판도 적지 않다. 굳이 30억 원이라는 세금을 쏟아 부으며 이미 '역사화'가 완료된(철지난) 작가를 '모실' 필요가 있는지, 해외에 나가야만 볼 수 있는 작품들을 소개한다는 게 목적이지만 그게 왜 국립현대미술관인지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90년대 YBA를 통해 보여준 과격이 이미 상업 화랑과 아트페어를 통해 충분히 소구되었다는 점도 어쩌서 지금이 전시를 열어야 하는지 되묻게 하는 요인이다. 무엇이 새로운지 불분명한 '뒷북 기획'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립 미술관이 동시대 미술의 담론형성보다 '홍행'을 좇는 듯한 여론이나, 싹든 좋은 '사업가'에 가까운 작가의 시장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주는 '보증인' 역할을 자처하는 현실도 이 전시의 그늘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본령은 '좋은 전시를 가져오는 곳'이 아니라, 한국미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균형 있게 구축하고 그 관계망을 연구·제시하는 것이다. 국가의 문화적 방향성을 설정하면서 한국 미술의 근간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책무가 우선이다.

따라서 국립현대미술관이 허스트를 선택한 것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단지 '세계적 작가 소개'가 아닌, 이 전시가 한국 현대미술의 맥락과 어떻게 접속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지점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완성된 브랜드의 광채를 빌려 기관의 위상을 투사하는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진 않을 텐데 말이다. /미술평론가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5일 (음 2월 7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보장은 절대 안됩니다. **60년생**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72년생** 소홀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 보세요. **84년생** 파랑새가 서신을 전하니 가인과 화합입니다.
- 49년생** 좋은 벗이 집에 가득하니 웃음꽃이 만발하겠습니다. **61년생** 자손에게 경사가 있는 날입니다. **73년생** 불의의 사고를 조심하세요. **85년생** 이성간에 이해와 양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 50년생** 명예와 인기가 동시에 오르는 날입니다. **62년생** 임신양명하니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됩니다. **74년생** 구술수만 조심하면 재복 관상은 하루입니다. **86년생** 오늘은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 51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3년생** 고집쟁이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75년생** 이성간에 마찰은 대화와 선물이 보약입니다. **87년생** 자신을 희생해야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 52년생** 가는 곳마다 나를 반기니 좋은 일만 생깁니다. **64년생** 관록을 얻으니 명예가 오를 것입니다. **76년생** 부부가 마주대하니 기분이 새롭습니다. **88년생** 아주 길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53년생** 가족에게서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65년생** 속전속결로 처리하면 결국 후회가 따릅니다. **77년생** 말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89년생** 식복이 있으니 거한 대접을 받습니다.
- 54년생** 금전, 명예운이 아주 길합니다. **66년생** 가족 나들이에 가정이 화락합니다. **78년생** 사세가 확장되고 신규사업을 도모합니다. **90년생** 동료간에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55년생** 일운이 막히니 건강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67년생** 오늘은 검소한 생활을 하세요. **79년생** 베풀면 언젠가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91년생** 꽃이 정원에서 웃으니 벌, 나비가 기뻐합니다.
- 56년생** 약간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길합니다. **68년생** 새로운 일을 착수하세요. **80년생** 자신을 희생해야 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92년생** 취직이나 계약이 성사될 듯 합니다.
- 57년생** 서두르지 마세요. **69년생** 정신을 가다듬고 새로운 일을 착수하세요. **81년생** 친구와 동료간에 모임이나 회식을 가지게 됩니다. **93년생** 감정대로 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 58년생** 서투름에 이득이 있을 듯합니다. **70년생** 자녀에게 신경 쓸 일이 있을 것입니다. **82년생** 무심코 던진 말이 일파만파의 파장됩니다. **94년생** 무난하고 평탄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 59년생** 기회가 왔으니 더욱 힘을 내세요. **71년생** 옛 친구나 동료에게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83년생** 직장에서 인정 받으니 승진수가 엿보입니다. **95년생**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리대는 선택재 아닌 필수재... 일회성 할인은 그만



기지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생리대 가격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유통가는 대규모 할인과 초저가 PB 출시로 응답한다. 하지만 행사가 끝나면 가격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제는 '이벤트성 인하'가 아니라 가격 투명성·품질 기준·세제 개편까지 포함한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리대 가격 언급 이후 유통업계의 대응은 두 축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중심의 할인 경쟁, 다른 하나는 PB 생리대 확대다. 이마트·롯데마트·GS25·CU 등은 최대 70%대 할인이나 1+1 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 유입을 늘리고 있고, 쿠팡·다이소·홈플러스 등은 100원 인권의 초저가 PB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가격 기준선을 낮췄다. 특히 PB는 제조사 브랜드(NB)에 대한 가격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할인 행사는 본질적으로 기간이 정해진 마케팅 수단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행사가 끝나면 다시 높은 가격을 감내해야 한다. PB 역시 초기 화제성 이후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에 뿌리내리기 어렵다. 결국 지금과 같은 단편적 대응만으로는 가격 구조 자체를 낮추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대형 유통사가 PB 생리대와 탐폰을 적극적으로 출시하며 '저가 기준 가격'을 형성해왔다. 여기에 정부의 세제 개편이 결합되면서 가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췄다. 특히 일부 국가는 월경용품을 생활필수품으로 분류해 세금을 면제하거나, 나아가 공공 차원의 무상 제공까지 확대하고 있다.

즉 시장 경쟁과 정책 개입이 동시에 작동할 때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미다.

따라서 정책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주요 생리대 제품의 원가 구조와 유통 마진, 가격 변동 이력 등을 일정 수준 공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 규제를 넘어 시장 신뢰를 높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또 저가 PB 제품이 확대될수록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가 중요하다. 가격 경쟁이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면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월경용품을 명확한 필수재로 규정하고 세제를 개편하는 것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리대는 선택재가 아니라 필수재인 데다, 소비자 체감 가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는 수단이다. 일회성 할인 이벤트를 넘어, 지속 가능한 가격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논의가 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tree6834@metrosoul.co.kr

김상회의四季 품격있는 부자

요즘 주식투자가 열풍이다. 부동산 급등에 따른 사회적 피로도가 높은 까닭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강력 대책을 내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은행 대출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부동산을 매입하려던 기존의 투자행태는 몸짓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식시장으로 부동산 투자자금이 유입되기에 국내 증시가 탄력을 받는 모양이다. 주가지수 5000을 넘어 6000을 기대하고 있으니 말이다. 실제로 여기저기에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 얘기가 술술 들려오면서 신흥 주식 부자들이 탄생하고 있다. 같은 부자여도 '졸부(猝富)'는 대접받지 못한다. 품격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늘 하는 얘기지만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돈을 쓰는 데도 품격이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졸부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은, 어떤 정당한 노력 없이 갑자기 부가 생기니 재물을 과시하면서 자신들이 갖지 못했던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이런저런 수단을 가리지 않는 행위들을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 될수록 갑자기 졸부가 탄생하게 되면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표정과 몸태에서 돈 자랑하는 품새가 드러나는 모습들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갑자기 돈이 생기니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가방을 사고 옷을 입으며 슈퍼카를 빙글을 내며 자랑하고 다닌다. 조선 시대 중후반기부터 만석꾼 부자인 경우 최씨 가문은 며느리는 시집은 후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으라 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가훈이었으니 남에게는 후하되 자신들에게는 검약했다. 정말 부자인 사람들은 시장에서 1만 원짜리 티셔츠를 사 입어도 싸 보이지 않는다. 무슨 차이일까?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옆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프렌즈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8		3	1	6
1		6		5	
	7	5			3
8				4	3
	4	1			2
7				8	4
		5		7	
4	9		3	2	8

5	9		7	4		1	
	4	5				9	
	1	7		6			
	4		7	8	3		9
		1					
			2			3	1
1				7	9		
6			4	5	7		2

8	2	9	1	8	9	6	7
1	6	9	2	7	2	9	8
9	7	8	9	6	2	1	2
2	9	8	6	8	2	1	7
2	9	1	7	2	8	8	9
6	8	7	9	9	1	2	8
8	2	6	1	8	9	7	9
9	1	2	8	6	7	8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7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82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미국, 글로벌 금융 진출 ‘교두보’… 전략·리스크관리 중요”

인터뷰

김우현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장

미국 자본시장은 자금이 가장 많이 모이고 새로운 금융기법이 가장 먼저 시험되는 시장이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 거점으로 뉴욕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영업망을 넓히는 차원을 넘어 자금 조달과 투자, 금융 혁신의 흐름을 한꺼번에 읽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 한복판에서 미국 금융시장과 한국 금융회사의 움직임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곳이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다.

김우현 뉴욕사무소장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에서 MBA를 받았다. 아시아개발은행과 금융감독원 국제협력국, 거시건전성감독국 등을 거쳐 현재 뉴욕사무소장을 맡고 있다. 국제 금융과 감독 업무를 두루 경험한 인물이 세계 최대 금융시장의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김 소장은 뉴욕의 의미를 단순한 해외 지점 이상의 공간으로 표현했다. 그는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국 금융시장은 전통적 금융상품 거래의 유통성뿐 아니라 새로운 투자기회와 투자기법 측면에서도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회사를 지향하는 국내 금융회사에게 미국은 전략적 교두보이자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 미국 진출 늘지만… 비슷한 사업모델은 과제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미국 진출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 투자자의 해외 투자 수요에 대응하는 증권사들의 미국 주식 중개업은 물론 자산운용과 투자은행(IB), 현지 자금조달 기능까지 사업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다만 김 소장은 국내 금융사들의 미국 사업 모델이 아직은 서로 닮아 있다는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 그는 “신규 진입 회사들의 다수는 한국에서의 주식 주문을 중개하는 브로커리지에 집중하고 있고 일부 회사는 청산 전문 증권사를 인수하는 등 진출 영역이 조금씩 다양해지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글로벌 금융회사와 경쟁하려면 외형 확대뿐 아니라 특화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지에서 체감되는 금융회사 간 격차도 적지 않다. 미래에셋증권처럼 단순 브로커리지를 넘어 청산과 유가증권 매매, 대차



김우현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장.

/허정윤 기자

“

미국, 자금 가장 많이 모이는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회사 도약 위한 주요거점

국내 금융사 미국 진출 꾸준히 늘어
브로커리지에 편중… 차별화 필요해
단순 진출 넘어 ‘특화전략’ 갖춰야

뉴욕사무소, 금융변화 읽는 ‘관측소’
생태계 바꿀 혁신 흐름 국내에 공유

단순 법규 준수 넘어 리스크체계 강조
현지 감독당국 기대 수준에 맞춰야

규제·제도·관행 등 국내시장과 달라
투자특성 파악, 선제적 위험 대비해야

등 종합 금융서비스를 수행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상당수 회사는 여전히 한국 투자자의 미국 주식 거래를 뒷받침하는 기능에 무게가 실려 있다. 김 소장은 “미국에 진출한 국내 법인과 지점들이 대부분 수익을 내고는 있지만 규모와 업무 범위가 서로 비슷한 측면이 있다”며 “초기에는 시장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오랜 기간 영업해온 만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IB 딜을 확대하려면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다는 시각도 내놨다.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에너지 시설 등 미국 내 프로젝트 투자와 대출 사업은 거래 발굴 능력뿐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김 소장은 “딜이 나왔을 때 참여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어야 하고 규모가 작으면 투자 한도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국내 금융사들의 사업 구조를 보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단계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국내 금융회사들의 미국 사업이 확대되면서 현지 금융 환경과 감독 체계를 이해하는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현장에서 모니터링하는 곳이 바로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다.

◆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 읽는 금감원 뉴욕사무소

김 소장은 뉴욕사무소의 역할을 “금융 변화의 전조를 읽는 관측소”에 가깝다고 표현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는 세계 최대 금융시장에 위치한 만큼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위험 징후를 빠르게 포착하고 금융 생태계를 바꿀 혁신 흐름을 국내에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뉴욕사무소는 미국 금융시장 이슈와 금융 제도 변화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정보를 선별해 본원의 감독 업무에 전달한다. 동시에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의 리스크 동향을 점검하고 FRB 뉴욕지부와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미국증권거래위원회 등 현지 감독당국과 교류·협력도 이어가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뉴욕에 진출하는 배경 역시 단순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기본적으로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뉴욕은 외화 자금 조달의 창구 역할도 한다”며 “금

용이 가장 발달한 시장이 미국이고 새로운 금융 흐름도 이곳에서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변화와 접점을 유지하려는 의미도 크다”고 덧붙였다.

◆ “미국, 국내시장과 달라… 규정만 지키면 되는 시장 아니다”

김 소장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규제 리스크다. 그는 “업권별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미국에서 영업하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유의해야 할 부분은 규제 리스크와 운영 리스크”라고 짚었다. 트럼프 정부 이후 금융 규제 완화 흐름이 일부 나타났지만 미국 감독기관의 권한과 재량 범위는 여전히 강력하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과거에는 금융보안이나 자금 세탁방지 같은 법규 위반 여부가 검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면 최근에는 감독당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감독 문화는 한국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규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지만 미국은 검사역이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그 자체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을 가법계 넘기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로 미국에 진출하는 금융회사들은 이런 감독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며 “뉴욕사무소도 국내 금융회사들이 현지 감독 방향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해외 투자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소장은 “개인이든 금융회사든 해외투자는 규제와 제도, 시장 관행이 국내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며 “투자상품이나 투자 대상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위험에 대한 대비도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우리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 경험과 노하우도 꾸준히 쌓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현지 경쟁력을 높여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미국 뉴욕 맨해튼 금융·증권가 야경.

“트렌드 제품·맞춤형 서비스로 집안을 봄처럼 화사하게 꾸미세요”

중동의 전쟁 사태로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요즘이다. 두바이 등으로 행복한 신혼여행이나 가족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도 ‘멘붕’이다. 그래도 봄은 왔다. 가구, 전자재, 생활가전 회사들은 새로운 인테리어 트렌드나 1인 가구와 같은 시대 상황에 맞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들로 소비자들을 손짓하고 있다.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려는 고객들을 위한 기업들의 여러 이벤트도 눈에 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유토이미지

2중 쿠션 구조... ‘미끄럼 저항성능’ 강화

LX하우시스

엑스컴포트 5.0

보행감 편안... 반려동물 제품·환경표지 인증

LX하우시스가 결혼, 이사 등 봄 성수기를 맞아 트렌디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대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LX Z:IN(LX지인) 바닥재 엑스컴포트 5.0’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LX Z:IN 바닥재 엑스컴포트 5.0’은 단일 쿠션층 구조의 기존 시트 바닥재와는 다르게 충격을 흡수하는 상부층과 탄력 있는 하부층으로 구성된 2중 쿠션구조로 되어 있어 다른 바닥재보다 편안한 보행감을 제공한다.

2중 쿠션구조인 만큼 청소기 소음이나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 소음과 가벼운 물건 등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경량충격을 줄여준다.

특히, 특수 표면처리 기술을 적용해 ‘미끄럼 저항성능’을 강화했으며 사람은 물론 반려동물까지 보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다. 반려견의 미끄럼 안전성 테스트 결과 ‘엑스컴포트 5.0’의 미끄럼 저항성능은 기존 자사 감마루 대비 약 30% 우수하다.

‘반려동물 제품 인증’도 획득했다. PS인증은 한국에견협회와 KOTITI시험연구원에서 지정



LX지인 바닥재 ‘엑스컴포트 5.0’.

/LX하우시스

한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되는 인증이다. 제조과정에서 지구환경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 감소 등을 사유로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했다.

‘엑스컴포트 5.0’은 입체감을 살린 고급 대리석 디자인과 질감을 그대로 살린 ‘스톤’ 패턴 9종, 섬세한 나뭇결과 선명한 컬러로 원목이 주는 감성을 그대로 구현한 ‘우드’ 패턴 6종 등 총 15종으로 구성됐다.

‘AMT 실드’ 코팅... 스크래치·곰팡이 억제

현대L&C

아르톤

하이드로프루프 코어 공법 적용... 강력 방수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 전자재 기업 현대L&C가 고강도 주거용 바닥재 ‘아르톤(Artone)’으로 인테리어 시장 추가 공략에 나섰다. 아르톤은 천연석과 고분자 수지를 고온·고압으로 압축해 만든 바닥재로 내구성과 내수성이 뛰어나다.

특히 아르톤은 현대L&C의 ‘하이드로프루프 코어(Hydroproof Core)’ 공법을 적용해 강력한 방수 기능을 갖췄다. 습기로 인한 뒤튐림과 변형이 적기 때문에 물 사용이 잦거나 청소가 잦은 환경에서도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다.

표면 내구성과 위생 성능도 한층 끌어올렸다. 일반 제품 대비 3배 수준인 두꺼운 표면 보호층에 현대L&C가 자체 개발한 ‘AMT 실드’ 특수 코팅까지 적용해 생활 스크래치와 마찰에 강해 깨끗이 유지할 수 있는 동시에 곰팡이 번식 억제 효과도 갖췄다.

디자인 측면에선 천연 석재의 질감을 선호하는 최근의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했다. 대리석 고유의 은은한 결을 묘사한 ‘베인(vein)’ 패턴 12종을 적용했다. 여기에 촉각적 굴곡을 입히는 입

체 엠보스 처리를 더해, 석재의 자연스러운 표면 질감과 깊이감을 구현했다.

라인업은 웜그레이와 베이지 컬러를 베이스로 따뜻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아테나’, ‘아이온’, ‘둔’과 무게감 있는 컬러의 ‘메티스’, ‘아레스’ 등으로 구성돼 공간 분위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 관계자는 “아르톤은 뛰어난 내구성과 방수 기능을 갖춰 주거 공간은 물론 보행량이 많은 상업 공간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며 “실제로 지난해 오픈한 현대L&C 신규 전시장 ‘스튜디오 H’에 개발중인 상품을 전시공했는데 수개월간 실사용하는데 있어 변형없이 깨끗이 유지되는 성능을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강도 주거용 바닥재 ‘아르톤’./현대L&C



더 클렌체 갤러리 내부에 조성한 시청각 미팅룸.

/KCC

“이맥스 클럽’으로 스마트 견적 받아보세요”

KCC

창호 솔루션

견적 비교부터 시공까지 원스톱 진행

KCC가 창호 견적 비교부터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O2O플랫폼 ‘이맥스 클럽(E max Club) 홈페이지’를 통해 봄 인테리어 고객들을 손짓하고 있다. 이맥스 클럽은 KCC가 대리점의 창호 가공 기술과 사후 관리(A/S)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우수한 대리점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는 이맥스 클럽 대리점들이 참여해 ▲스마트 견적 시스템 ▲대리점 안내 ▲제품 정보 ▲시공 사례 등을 통합제공해 창

호 구매 전 과정을 하나의 채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핵심 기능인 스마트 견적 시스템은 ‘역점매 방식’을 적용해 다양한 대리점의 견적을 한 번에 받아 볼 수 있다.

KCC는 또 하이엔드 브랜드 ‘클렌체’를 앞세워 창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클렌체는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적용이 확대되며 고성능 창호로 주목받고 있다. 단열과 기밀 성능은 물론 조망과 개방감까지 고려한 설계가 특징이다.

실제로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을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잠원노블레스’ 리모델링 현장 등에 적용됐으며, 신반포 22차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바닥·벽·가구 하나로... ‘공간 통합’ 제안

동화기업

아이코닉 스톤 컬렉션

통일감 있는 연출로 전체 디자인 완성도 제고

동화기업의 건재 브랜드 ‘동화자연마루’가 선보인 ‘아이코닉 스톤 컬렉션(Iconic Stone Collection)’은 석재 패턴을 기반으로 바닥과 벽, 가구 도어까지 같은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동화자연마루의 첫 번째 공간 통합 디자인 컬렉션이다.

아이코닉 스톤 컬렉션은 바닥재 ‘진 그란데’와 ‘진 그란데 스퀘어’, 벽재 ‘시그니얼’, 가구 도어재 ‘디하임’에 동일한 패턴을 적용할 수 있다. 여러 자재를 따로 선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톤 차이나 스타일 불일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공간 전체를 조화롭게 구성할 수 있다.

컬렉션은 총 7종 패턴으로 구성된다. 타일형 감마루 트렌드를 이끌어 온 기존 베스트 패

턴 ▲사하라 라이트 ▲이모션 블랑 ▲몬테 화이트 3종에 ▲슬레이트 모티프 ▲슬레이트 스틸 ▲포틀랜드 모티프 ▲포틀랜드 스틸 등 신규 패턴 4종이 추가됐다. 특히 새롭게 선보인 패턴은 고급스러운 유럽 천연석에서 영감을 받아 세련된 질감과 차분한 색감을 구현했다.

동일한 패턴과 톤을 바탕으로 바닥과 벽, 가구를 함께 구성하면 공간 전체의 디자인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다. 통일감 있는 연출은 물론 취향에 따라 자연스러운 믹스매치 인테리어도 가능하다. 특히 신규 패턴 4종은 동일한 톤을 유지하면서 패턴의 질감에 차이를 뒤같은 색상 안에서 다양한 조합을 연출할 수 있다.

아이코닉 스톤 컬렉션이 적용된 제품은 모두 내구성이 뛰어난 코어 소재를 적용해 생활 스크



‘아이코닉 스톤 컬렉션’을 적용한 인테리어.

/동화기업

래치나 찰힘에 대한 걱정을 줄였다. 오랜 기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습기에 강한 내수성을 갖춰 변형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내오염성도 우수해 생활 오염 관리가 쉽다.



셀트리온
新성장전략 공개
'글로벌 톱3' 목표
나



Life

김기문
"임기를 끝으로
회장직 마무리"
L2



12분마다 신선한 얼음 생성... 하루 최대 1659개

코웨이

아이스 스탠드 시리즈

얼음 저장고 용량 1kg~ 5.2kg 세분화

코웨이가 지난해 말 국내 최대 얼음 용량의 스탠드형 정수기 '아이스 스탠드 5.2'를 출시한데 이어 최근에는 중형 스탠드 얼음정수기 중 가장 많은 제빙량을 갖춘 '아이스 스탠드 3.0'을 선보이며 시장을 더욱 공략하고 있다.

국내에서 용량이 가장 큰 '아이스 스탠드 5.2'는 5.2kg의 넉넉한 얼음저장고를 탑재했다. 일일 제빙량은 기존 모델 대비 약 94% 증가한 20kg을 구현해 하루에 최대 약 1659개의 얼음을 생성한다. 특히 12분마다 신선한 얼음을 생성하는 쾌속 제빙 기술력을 탑재해 기존 대비 약 31% 빠른 속도로 얼음을 공



아이스 스탠드 3.0 정수기 /코웨이

급해준다.

중형 사이즈의 '아이스 스탠드 3.0'은 전작 대비 부피를 약 11% 줄였음에도 일일 제빙량이 두 배로 늘어난 13.6kg을 구현해내 하루 최대 약 1246개의

얼음을 생성할 수 있다.

컴팩트 사이즈의 '아이스 스탠드 1.0'은 소규모 업소에서도 얼음을 사용하고 싶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공간 활용도를 높여 좁은 장소에서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물을 받는 순간의 편의와 효율성도 강화했다. 신제품 2종의 추출부 높이는 허리를 굽힐 필요가 없도록 팔 높이까지 올렸다. 추출 공간은 27cm로 넓어져 긴 물병도 기울이지 않은 채로 안정감 있게 올려두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위생도 신경 썼다. 4중 UV 살균 기능으로 얼음 저장고부터 트레이, 파우셋을 주기적으로 살균해주며 작동 상황은 전면 화면을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1인 가구 맞춤형 침대 '올리보'.

/에이스침대

"1인가구 취향 딱 맞춰드려요" '올리보·루체·벨라' 침실 혁신

에이스침대

침실 솔루션

올리보, 브리티시 레트로 감성 재해석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1인가구의 독특한 소비 패턴이 주목받고 있다.

에이스침대는 이같은 트렌드에 주목해 1인 가구 맞춤형 침실 솔루션을 내놨다.

올해 새롭게 출시한 '올리보(OLIVIO)'는 브리티시 레트로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패브릭 싱글 침대다. 헤드보드의 톤 다룬된 올리브 그린 컬러와 정갈한 체크 패턴이 침실에 평온하면서도 생기 있는 무드를 더하며, 자연의 색감을 담아 내추럴·모던 콘셉트의 인테리어와도 조화롭게 어

우러진다.

아트월 컨셉의 '루체-LUCE-III(LUCE-III)'는 고급스러운 템파보드와 은은한 LED 조명의 조화가 돋보이는 호텔 침대다. 자연광을 닮은 부드러운 조명이 낮에는 우아한 모던함을, 밤에는 안락한 무드를 선사해 부티크 호텔에 온 듯한 감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또다른 제품인 프리미엄 하드타입 매트리스 '에이스 벨라-III(ACE BELLA-III)'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견고하게 지지해줘 극강의 편안함을 선사한다. 에이스 벨라-III에는 체압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강력한 지지력의 '플러스 파워 스프링'을 사용했다. 강선 절단이나 변형을 줄인 5%회전의 오픈형 설계로 장기간 사용해도 처음과 같은 지지력을 자랑한다.

16cm 초슬림 디자인... 3세대 이중관 냉각기술 도입

교원 웰스

슬림원 직수정수기

iF·레드닷 등 세계 디자인 어워드 석권

교원 웰스가(Wells) 1·2인 가구에 최적화된 미니멀 가전 '슬림원 직수정수기'로 봄 가전 시장을 공략한다.

슬림원은 한 뼘 남짓한 공간으로 주방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다. 가로 폭 16cm의 초슬림 디자인을 적용해 최소한의 면적에 설치할 수 있다. 냉수와 온수, 정수 기능을 완벽히 갖추면서도 주방 상판 위 점유 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게 특징이다.

외관 디자인은 절제된 직선과 원통형 코크의 조화를 통해 인테리어 오브제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했다. 전면 디스플레이에는 이음새 없이 매끈한 표

면을 구현하는 인몰드 라벨링(IML) 공법을 적용했으며 은은하게 빛나는 히든 라이팅 버튼을 더해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을 완성했다. 암석층을 통과한 미네랄 물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마블 화이트'와 '마블 웜그레이' 색상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출수부에 적용한 메탈 코크와 'MINERAL' 각인은 교원 웰스만의 정수 기술 정체성을 상징하는 포인트 역할을 한다. 이런 디자인 경쟁력은 iF와 레드닷,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 이어 '2025 IDEA 디자인 어워드' 홈 부문 은상 수상까지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 석권이라는 성과로 증명됐다.

내부에는 특히 출원한 '3세대 이중관 냉각기술'을 통해 냉각 장치 체적을 약 60% 줄였다. 확보된 여유 공간에 '3중 미네랄 필터 시스템'을 배치해 디

자인과 정수 성능의 조화를 이뤄냈다.

위생과 편의성도 뛰어나다. 2시간마다 자동으로 작동하는 UV 케어 시스템과 분리 세척이 가능한 트레이와 출수부는 관리 부담을 덜어준다. 케어+ 모델은 물이 흐르는 곳을 5일마다 전해수로 자동 케어해 준다.



슬림원 직수정수기 /교원 웰스

스테인리스 진공 시스템 적용... 위생·효율 '두토끼'

SK매직

초소형 플러스 직수 정수기

기존 자사 제품대비 부피 60% 감소

SK인텔릭스의 헬스 플랫폼 브랜드 SK매직이 성능과 디자인을 대폭 강화해 출시한 '초소형 플러스 직수 정수기'는 폭 164mm, 깊이 395mm, 높이 345mm로 기존 자사 제품 대비 약 60% 수준까지 부피를 줄여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에 따라 설치 공간이 좁아 정수기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은 물론 1~2인 가구, 신혼부부,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안심맞춤이다.

색상은 내추럴 화이트와 뉴트럴 실버 두 가지로 구성했다. 직관적인 고급



초소형 플러스 직수 정수기. /SK매직

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용기의 높이에 따라 조절되는 '무빙코크' 기능으로 물 튀 현상을 줄이고 '출수 유도등'을 추가해 야간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물이 흐르는 유로는 오염과 부식, 세균에 강한 '올(ALL)-스테인리스' 소재로 제작해 약 100° C 고온수도 안심

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 국내 최초로 '스테인리스 진공 시스템'을 적용해 위생성과 에너지 효율을 모두 잡았다. 제품 설계 전반에 친환경 요소를 적극 반영해 기존 제품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을 약 18% 절감하고 스티로폼(EPS) 사용도 최대 96%까지 줄였다.

출수 용량은 120ml부터 1000ml 연속 출수까지 4단계로 이용할 수 있고 10ml 단위로 섬세한 용량 조절도 가능하다. 유아수(약 45~55° C), 차(약 70° C), 온수(약 85° C), 고온수(약 100° C)까지 4단계 맞춤 온도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정수기의 핵심인 필터는 프리 블록 카본(이물질 및 소독부산물 제거)과 복합 나노PAC(미생물, 박테리아 및 냄새 제거)을 적용했다.

수납부터 스마트 테이블까지 공간 혁신 신제품 3종 출격

현대리바트

에딧·스와니에·위무브

에딧, 5mm 단위 맞춤제작 가능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탈인테리어 기업 현대리바트가 올해 상반기 이사·혼수 시즌을 겨냥해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신제품 3종을 출시했다.

'에딧(Edit)'은 5mm 단위까지 조절할 수 있는 맞춤 제작 시스템을 통해 수납 효율을 극대화한 불박이장이다. 컬러는 어떤 인테리어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화이트와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그레이지(Grey+Beige) 두 가지로 구성했다.

'스와니에(Soigne)'는 집에서도 호텔 객실 같은 편안함과 분위기를 누릴 수 있는 호텔형 침대다. 스와니에 침대

는 호텔 침실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 있는 구조와 절제된 디자인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색상은 아이보리와 딥브라운 두 가지로 구성해 밝고 편안한 분위기부터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무드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위무브(We-Move)'는 전동리프트 시스템을 적용해 거실과 주방, 서재의 경계를 허문 다목적 스마트 테이블이다. 식사나 아이들의 놀이, 공부, 재택근무 등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활동에 맞춰 상판 높이를 610mm에서 1020mm까지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특히 세계 1위 리니어 모터 제작사 제창(Jiechang)사의 듀얼 모터를 탑재해 높이 조절 시의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오염과 스크래치에 강한 세라믹 소재 상판을 사용해 일상적인 관리 편의성을 높였다.



불박이장 '에딧'.

/현대리바트